

내일을 향해 글로벌 리더를 향한 도전 Challenge toward a Global Leader

강한 에너지로 열정을 꽃피우다

Strong Energy to Make Passion Blossom



초심과 열정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Let's Prepare for the Future with our Original Resolution and Passion





목차의 컨텐츠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되며, 해당 페이지의 좌측 상단 아이콘을 클릭하면 목차로 이동됩니다.

Click to move to pages, and icon on the top left back to the index.

FOR BETTER TOMORROW

Vol .51

발행일 2022년 7월 6일

발행처 (주)와이지-원

홈페이지 www.yg1.kr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40(송도동)

사내보 '내일을 향해'는 한국정기간행물 윤리위원회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수록된 글과 사진을 (주)와이지-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사보에 사용된 사진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되었습니다.

YG-1 webzine is photographed in compliance with COVID-19 quarantine rules.



IIG IIG

07





30



201

INSIGHT		BALANCE		OUTSIGHT	
COLUMN 송호근 회장 Chairman Hokeun Song	04	THEME ESSAY 당신은 프로입니까? [프로지수 셀프 테스트] Are You a Professional? [Self-Test: Professional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라	12 Minds]	HEALING TIME '착한 소비'로 떠오른 비건 트렌드 Veganism, An Emerging Trend for "Good-hearted Consumption"	34
CAMPAIGN 여러분의 소중한 신고가 건강한 와이지-원을 만듭니다 : 레드휘슬 제도 도입 Your Precious Reporting Will Make	06	Turn on the Navigation in Your Life DYNAMIC YG YG-1 최초의 복합재료 소재 전문 생산기지, 미국 테크센터 생산팀	16	SMILE FOR U 열정을 나누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Sharing Passion for a Better Tomorrow	38
YG-1 Healthier: Red-Whistle YG BRIEFING YG-1 소식 / 전시회 / 신제품 News / Exhibition / Product	07	YG-1's First Production Base that Specializes in Composite Materials: Production Team, YG-1 Technical Center in USA YG LOUNGE		TECHNOLOGY IN YG-1 자동차산업을 위한 YG-1 툴링 솔루션의 혁신 Innovation in YG-1 Tooling Solutions	40
		나무보다 숲을 보는 시각으로 글로벌 협업을 주도하다 Leading Global Cooperation with a Perspective to See the Forest rather than the Trees		for Automotive Industry BOOK N BOOK 추천도서 Recommended Books	42
		COME TOGETHER 멕시코법인 고객서비스 총괄 에더 코르테스 씨 가족 Family of Mr. Eder Cortes, Customer Service Supervisor at YG-1 Mexico	26	SMART DICTIONARY 워라벨을 넘어 워라블 시대가 온다 Going beyond the Age of Work-life Balance to A New Era of Work-life Balance	43
		YG ON-AIR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럽법인의 영업전 YG-1 Europe's Business Strategy to Respond to the Chang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u>북</u> 30	YG PEOPLE 회사동정 / 함께 나누는 이야기 Movement / YG-1's Story	44





화장 송 호 근 Chairman Hokeun Song

초심과 열정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Let's Prepare for the Future with our Original Resolution and Passion

글로벌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국내외 와이지-원 가족과 당사를 신뢰하고 지지해주신 고객, 협력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코로나19만 누그러지면 나아질 것 같은 경제 상황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의 긴축정책 가속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I'd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YG-1 family members both in and outside of the country who have done their utmost as well as customers and cooperative companies that have provided unwavering trust and support despite the unstable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global depression. The economic situation that seemed to improve as soon as COVID-19 became moderate is getting worse due to the combination of the prolonged conflict in Ukraine and the accelerating austerity measures by the U.S. Since both internal and external uncertainties and the competition between corporations are projected to deteriorate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t is time for us to make multilateral efforts to respond to rapidly changing situations.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흐름과 함께 절삭공구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첨단 공구뿐만 아니라 고객의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가공 솔루션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5월 한국에서 개최된 SIMTOS 전시회에서도 한층 고도화된 제품과 기술이 대거 선보였고, 9월 예정인 독일 AMB, 미국 IMTS 전시회에서도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주도권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집중하면서 '고객 대응 역량'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차별화 전략을 펼치려는 움직임도 한층 빨라졌습니다.

With the digital transformation trend in every industry, the cutting tool market is also experiencing hectic changes. Recently, customers began paying attention to not only high tech tools but also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based tooling solutions to reduce cost and improve productivity. At SIMTOS held in May in Korea, many high-tech products and technologies were demonstrated and there will be more harsh competitions to get the upper hand with state-of-

the-art technologies at AMB in Germany and IMTS in America in September. Since they focus on what customers' need, they are quick to use differentiated strategies that put emphasis on "The potential to respond to customers".

이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강자와 약자에서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개편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고객의 숨은 니즈를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내고, 누가 더 빨리 실행하느냐가 기업의 성패를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빠른 물고기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사고를 빠르게 실행해 나갈 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개인의 열정을 다시 끌어올려 일등 경쟁력을 갖춘 와이지-원을 만들어나갑시다.

It is said that now is not a time when big fish pray on small fish but faster fish feed on slow fish. As the economic paradigm is changing from the strong and the weak to the faster and the slower, how to accurately point out customers' hidden needs and how to quickly utilize such findings have become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the survival of a company. In order to survive in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we must take the faster fish strategy. When we practice innovative thinking that breaks existing frames, we can grasp new opportunities. Don't be afraid of challenges and gather your individual passion to make YG-1 equipped with top-tier competitiveness.

와이지-원은 최근 몇 년 간 조직문화 개선, 업무 프로세스 재정립 등 체질 개선을 펼치며 기초 체력 키우 기에 집중했습니다. 임직원 모두의 주체적인 참여 덕분에 개인과 조직 역량도 크게 강화되었고, 수익성도 개선되어 내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제조환경 변화에 발맞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품질과 기술을 확보해 야 하며, 제조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테크센터는 스페셜 툴 제품을 중심으로 고객가치 기반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독일 테크센터와 유럽지역 해외법인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시너지 창출에 주력해야할 것입니다. 한국 본사가 중심이 되어 글로벌 모든 조직과 거기에 몸담고 있는 개개인들이 서로 신뢰하며 협업할 때 정말로 놀라운 성과로 이어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Over the last several years, YG-1 has focused on radical reform activities such as corporate culture improvement and restricting business processes to improve basic capabilities. I believe that voluntary participation of all employees has strengthe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nd improved profitability and internal maturity. However, we shouldn't be off guard in order to survive in the global competition. Responding to the changes in the manufacturing environment, we have to secure quality and technology that meet the global standard, reduce manufacturing costs to increase price competitiveness and provide the best service that contributes to the productivity improvement for customers. To this end, the YG-1 Technical Center in USA must provide the service based on customers' value and special tools while the YG-1 Technology Center GmbH and overseas branches in Europe work to maintain close partnerships to create synergy effects. When all global organizations and their employees place their trust and cooperate in the headquarters, we will be able to generate overwhelming results and secure competitive advantages.

와이지-원 가족 여러분!

전 세계가 복합적인 위기 속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잘 견뎌왔듯이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잃지 않고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Back to the Basics, Back to the YG SPIRIT'를 더욱 깊이 내재화하여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열정과 에너지가 모여 와이지-원을 새롭게 바꾸고 재도약을 이끄는 저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G-1 family across the globe!

Even though the world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complex crises, let's cheer up more as we have done great so fa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move forward without losing balance. When you internalize "Back to the Basics, Back to the YG SPIRIT" more deeply to make your roots strong, you can reap excellent fruits. Don't forget that your individual passion and energy is the potential to make a new YG-1 and let it take another big leap. I will always support you. Thank you.



여러분의 소중한 신고가 건강한 와이지-원을 만듭니다

Your Precious Reporting Will Make YG-1 Healthier

본사가 와이지-원 그룹의 준법경영 강화 차원에서 익명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는 레드휘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레드휘슬은 국내 본사뿐 아니라 해외지사, 관계사, 그리고 고객 및 거래처 등 와이지-원 그룹의 모든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사 준법경영실은 이미 레드휘슬을 통해 제보된 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 속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레드휘슬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드휘슬은 '익명신고시스템'이며 누구든지 안심하고 그룹웨어, 홈페이지, PC, 모바일(레드휘슬 앱) 및 QR 코드 등을 통해 언제든지 부정, 직무수행 저해 행위, 보안 위반 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To strengthen the compliance of YG-1 Group, the headquarters adopted a whistle-blower system named **Red-Whistle** through which anyone can make the reports **ANONYMOUSLY**. This **ANONYMOUS** whistle-blower system named **Red-Whistle** has been fully operational since 1st June and all of the members and the stakeholders of YG-1 Group such as the employees of the headquarters and of the affiliates, and any of the customers and of the suppliers can use this **Red-Whistle**. The Legal and Compliance Department of the headquarters has taken measures against the reported cases and plans to respond to the next cases quickly in strict security. YG-1 requests that you use this **Red-Whistle** proactively to make a healthier and more transparent organizational culture of YG-1 group.

Since the <u>Red-Whistle</u> is the <u>ANONYMOUS</u> whistle-blower system, and anyone can report the corruption, unethical activity, any activity degrading the job, and trade secret related matters at ease through the groupware, website, PC, mobile devices (Red-whistle application) and QR code.









한국어 Korean

6



영어 English



일본어 Japanese



중국어 Chinese



베트남어 Vietnamese



러시아어 Russian



스페인어 Spanish



이랍어 Arabic

더 많은 소식은 YG-1 홈페이지(www.ya1.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nd out more information at YG-1 website. (www.yg1.kr)

FOR BETTER TOMORROW

YG-1 인도법인 벵갈루루 공장 증축

Manufacturing Expansion of YG-1 India's Bangalore Plant











YG-1 인도법인이 지난 4월 18일 벵갈루루 공장 생산 증설을 위한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공장 증설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현재 Tap, Tap Blank, Solid Carbide End Mill 및 Tool Holder 등 YG-1 주력제품을 생산할 절삭공구 및 공구홀더 사업부 전용 생산라인 2개동 공사가 진행 중이다. YG-1 인도법인은 올해 안에 생산 확대를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본격 생산을 시작하면 기존보다 3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산 라인 확대를 통해 인도 내수시장과 더불어 글로벌 수요 증가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YG-1 인도법인은 공장 증축을 앞두고 33명의 연수생을 선발해 한국 본사에서 실시하는 90일 교육 프로그램에 파견했다. 이를 통해 YG-1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생산기술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배우고, 생산공정을 실습하여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YG-1 India had a groundbreaking ceremony on April 18 for the manufacturing expansion of its Bangalore Plant. Two additional Manufacturing warehouses dedicated to Cutting Tools and Tool Holders division are being built currently. Main production items in the expanded facilities would be Taps, Tap Blanks, Solid Carbide End Mills and Tool Holders. With the expansion expected to be completed within this calendar year, enhanced capacity will be nearly three times our existing capacity. Additional capacities will fulfil India's domestic requirements and support global needs as well.

To support this project, we have started talent acquisition, and a team comprising 33 trainees has been sent to HQ, Korea to attend a 90-days training program to manufacture all product mix. It will help the team to learn and adapt the production skills and quality management performed at HQ.

YG-1 대국법인 창립 13주년 기념 행사

13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YG-1 Thailand









YG-1 태국법인이 지난 5월 20일 창립 13주년을 맞아 임직원의 성과를 자축하는 창립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을 주제로 진행되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했으며, 런치파티에 직원들이 한국의 대표 의상인 한복을 입고 참여해 현장 분위기를 한층 북돋기도 했다. 한편 태국법인은 창립기념행사에 앞서 사회복지시설(Wai Wattaniwat Foundation)을 찾아 소외 이웃들과 훈훈한 정을 나눴다. 그들만의축제에서 함께 하는 축제로 확대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임직원들은 해당 시설에 머물고 있는 독가 어르신들을 위해 청소, 식사 대접, 레크리에이션 등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오후에는 태국법인 임원진과 직원들이 지난 13년을 돌아보며 짧은 소감을 발표하고, 앞으로도 공동 목표를 향해 계속 발전하는 절삭공구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시간을 함께했다.

YG-1 Thailand held the 13th anniversary event on May 20 and celebrated the great performance of its employees. The event was meaningful because it was held under the theme of "Korea" and employees who wore hanbok, Korean traditional clothes, to participate in the lunch party brightened up the atmosphere of the event. Before the event, they visited Wai Wattaniwat Foundation to share warmth with people in need.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was to expand the in-house festival to the society and fulfill its responsibility and role as a member of the society. Employees at YG-1 Thailand did worthwhile activities including cleaning the facility and providing meals and recreational activities to the elderly who live there. Also, in the afternoon, they expressed their thoughts on the last 13 years and determined to grow as a cutting tool company that continuously develops to achieve its shared goals.

8 July 2022 ***//**5



FOR BETTER TOMORROW Vol.51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제조기술전시회 SIMTOS 2022 참가

Participated in SIMTOS 2022, the Largest Manufacturing Technology Exhibition in Korea



YG-1이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생산제조기술전시회인 SIMTOS 2022에 참가해 그동안 소개되지 않은 신제품과 폭넓은 제품 라인업으로 고객을 만났다.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되어 더욱 큰 관심을 모았으며, 기대만큼 급변하는 제조 트렌드와 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YG-1은 툴링 및 측정기술관에 마련된 부스에 엔드밀, 드릴, 탭 등의 라운드 툴을 비롯해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인덱서블 인서트를 최초 공개하며 토탈 툴링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특히 E·FORCE, ALU-CUT HPC, V7 PLUS 등 고속, 고경도강 가공에 최적화된 신제품에 참관객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담 문의가 이어졌다. YG-1 국내영업본부관계자는 "오래간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서 생산성을 높여주고 비용을 절감해주는 인덱서블 인서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있는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로 제품군을 확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YG-1 took part in SIMTOS 2022, the largest manufacturing technology exhibition in Korea, to introduce new products that haven't gone public and a wide ranging product lineup to customers. The technology show opened for the first time in four years due to the COVID-19 crisis and was held from May 23 to 27 at KINTEX in Ilsan and provided a good opportunity for participants to overview the rapidly changing manufacturing and industry trends. YG-1 introduced its products including round tools such as end mills, drills and taps at its booth in the Tools & Related Equipment Pavilion and revealed the indexable inserts that it has developed with all of its heart and soul for several years for the first time to strengthen its reputation as a total tooling solution provider. In particular, new products specializing in high speed and high hardened steel processing such as E·FORCE, ALU-CUT HPC and V7 PLUS drew great attention from participants which led to consultation inquiries. One of the Domestic Sales Department members at HQ commented, "The exhibition provided us with an opportunity to meet customers face-to-face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and realize the heightened attention and recognition on the indexable inserts and their ability to increase productivity at lower costs" and added the plan to expand their product range to meet the customers' needs with excellent quality and service.

July 2022 **"/**G

해외 전시회 통해 글로벌 고객과 소통

Communication with Global Customers at Overseas Exhibitions

YG-1이 지난 5월과 6월 유럽과 남미, 아시아 각지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해 제조 공정에 최적화된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했다. 먼저 5월 3일부터 5일간 브라질에서 열린 FEIMEC 2022에 참가해 중남미 지 역 고객을 만났다. YG-1 Brazil은 중남미 최대 규모의 기계 및 장비 박람회인 FEIMEC에서 우수한 칩 컨 트롤과 가공 성능을 보여주는 초경 인서트 재종을 소개하며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 다. 특히 기간 동안 YG-1 부스를 찾은 1,400명이 넘는 방문객들과 활발한 상담을 이어가며 빅 엔드 유저 와 대리점 등 새로운 파트너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어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JEC World 2022에 참가해 복합재료용 공구와 가공 솔 루션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YG-1 Europe은 방문객들에게 CVD 코팅 CFRP 제품을 중심으로 비용 절 감 및 시간 단축을 실현해주는 프로세스와 솔루션을 가공 시연하고, 복합재료 분야에서 확장을 거듭해 가고 있는 YG-1의 기술 동향과 비전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한, 6월 13일에서 17일까지 개최된 스페인 BIEMH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말레이시아 METALTECH에 참가해 신제품과 산업별 부품 가 공솔루션을 선보였다. 특히 BIEMH는 스페인에서 YG-1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YG-1은 하반기에도 AMB와 IMTS 등 대규모 전시회에 참가해 글로벌 입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UPCOMING EXHIBITIONS IN 30, 2022

전시회명 Exhibition	일정 Date	개최국가 및 도시 Venue
SIMM	15-18 Aug.	Shenzhen, CHINA
▲IMTS 2022	12-17 Sep.	Chicago, USA
AMB	13-17 Sep.	Stuttgart, GERMANY
SMAKTEK	26 Sep. – 1 Oct.	Istanbul, TURKEY

^{*} The schedule could be changed without notice.







FEIMEC [3-7 May / São Paulo, BRAZIL]







METALTECH [22-25 June / Kuala Lumpur, MALAYSIA]

YG-1 participated in exhibitions in Europe, South America and Asia in May and June to introduce various solutions optimized for manufacturing processes. The first event was FEIMEC 2022 held in Brazil from May 3 for five days and provided a chance to meet customers in Latin America. YG-1 Brazil introduced carbide insert products that present excellent chip control and processing performance at the largest machinery and equipment exhibition in Latin America and raise YG-1's brand recognition among potential customers. The branch held active consultations with 1,400 visitors at the booth with an emphasis on developing new partners such as big end users and dealers.

In succession, YG-1 joined JEC World 2022 held from May 25 to 27 in Paris to promote tools and tooling solutions for composite materials. YG-1 Europe demonstrated processes and solutions for CFRP products with CVD coating to provide visitors with an opportunity to realize their cost and time reduction capabilities. The branch focused on informing YG-1's technology trend and vision and its expansion in the composite material area. It took part in BIEMH in Spain from June 13 to 17 and METALTECH in Malaysia from June 22 to 25 from consecutively and demonstrated new products and component tooling solutions by industry. BIEMH was a particularly excellent opportunity to raise YG-1's brand image efficiently in Spain. YG-1 plans to join large scale exhibitions including AMB and IMT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o strengthen its global reputation.



FOR BETTER TOMORROW Vol.51

프리하든강 및 고경도강 가공용 밀링 인서트 신규 재종 'YG012' 출시

Launch of Milling PVD Grade, 'YG012' for Pre-Hardened & Hardened Steel



Key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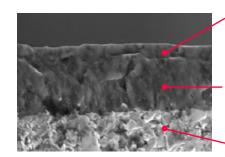
- 새로운 PVD TiSiN 코팅으로 우수한 내산화성 및 향상된 측면 마모 방지 기능
- 특화된 코팅 조성으로 내치핑성이 우수
- 내마모성과 인성의 밸런스가 뛰어난 신규 개발 모재 적용
- New PVD TiSiN coating provides excellent oxidation resistance and improves flank wear resistance.
- Special content, including coating composition, will provide excellent chipping resistance.
- A newly developed substrate with a good balance between wear resistance and toughness.

안정적인 공구 수명과 높은 생산성 제공

Provides stable tool life and higher productivity

YG-1이 프리하든강과 고경도강 가공에 최적화된 신규 밀링 인서트 재종 YG012를 출시했다. YG012는 다이캐스트 강이나 일반 플라스틱 금형 강 등의 가공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YG-1 has launched a new milling PVD grade, 'YG012' for Pre-Hardened & Hardened steel. YG012 has an excellent performance on Pre-hardened steel & hardened steel with HRc30~50 such as Die cast steel or General plastic mold steel.



특수 처리를 통한 부드러운 표면과 내치핑성 증대 Top coating provide to chipping resistance and smooth surface

Si 함유를 통해 상면 및 측면 내마모성 증대 Main coating provide flank & crater wear resistance

신규 개발된 모재를 통해 내열성 증대와 우수한 인성 제공 New substrate will prevent heat damage and provide excellent toughness

| Suggest Cutting Conditions

ISO	Work-Piece	Cutting Speed (m/min.)
Р	Pre-hardened steel	80~160
н	hardened steel (~HRc50)	70~120



당신은 프로입니까?

Are You a Professional?

[프로지수 셀프 레스트]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직원이 회사를 선택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유능한 인재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회사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직원들도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 회사가 붙잡고 싶은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사와 개인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개개인이 프로의 식을 갖추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법이 된다. 각자 맡은 바를 다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성과 향 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태도 말이다. 아래 테스트를 통해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체크해보자.

Many experts unanimously say "We will live in an era when employees choose companies they work for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for a company to work hard to attract competent workers in that era. In the same manner, employees should also make efforts to be workers their companies need and want. It would be the most fundamental solution for individual workers to be equipped with a professional mindset for a mutual growth of their companies and themselves. In other words, an attitude to carry out one's duty to the fullest with responsibility and spontaneously make an effort for performance improvement. Let's take the test below to check what you need to be a professional.

방법 Method

아래 항목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점수를 적은 후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세요. Check the sentences below and add up all of the points you get.

매우 그렇다(5점) Totally accurate (5 points) 그런 팬이다(4점) Accurate (4 points) 보통이다(3점) Neutral (3 points) 그렇지 않은 팬이다(2점) Inaccurate (2 points) 전혀 그렇지 않다(1점) Totally inaccurate (1 point)

나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

I have clear goals in my life.

나의 인생 목표는 10년 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My life goals won't change in ten years.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I am prepared to sacrifice other things to achieve my goals.

나의 하루는 열정적이다.

I am passionate in leading my life.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 100% 에너지를 쏟는 편이다.

I devote 100% of my energy every day to achieve my life goals.

하루 1시간 이상은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한다.

I invest more than 1 hour a day to accomplish my life goals.

인생 목표를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My life goals make my heart race.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돈을 재투자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I am ready to reinvest my money to accomplish my life goals.

현재 나의 직업은 내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I think my current job is a part in the course to achieve my life goals.

나는 어린 시절부터 잘하던 일을 현재 직업으로 하고 있다.

My current job is related to what I have done well since childhood.

일을 하면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낀다.

I feel psychological satisfaction while working.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며 잘한다고 칭찬한다.

People around me compliment me for working well.

12 July 2022 **"/**G

나의 비전은 그림을 보듯이 선명하다.

I have a clear life vision like a picture.

나의 비전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다.

There are quite a few people around me who empathize with my vision.

나는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인맥도 풍부한 편이다

I have ample personal connections not only in my company but also in my personal life.

나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다.

I manage my time thoroughly.

정보 관리를 위해 나는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

I have a habit of keeping a steady record for information management.

누가 평생 나와 함께할 사람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I can tell with confidence that with whom I will be for the rest of my life.

주변에 나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I have many people around me who think highly of my passion.

나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Many people come to me for advice or counselina.

나는 숫자가 들어간 구체화된 삶의 비전이 있다.

I have a clear life vision described with specific numbers.

결과 Score interpretations

80~105점: **진정한 고수**

80-105 points: You are a genuine professional

당신은 투철한 프로의식을 갖춘 최고의 직장인이다.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하며, 스펙과 인성을 갖춘 프로 일잘 러로서 동료와 상사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고 있다. 자신의 성과뿐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회사에 기여 해 누구나 탐내는 인재로 평가받는다.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성과로 연결할 줄 알고, 확실한 비전으로 미래를 준비 해 나가는 사람이다.

You are the best worker equipped with a spirit of professionalism. Since you are a good worker with responsibility, good character and the sense of professionalism who takes the lead in your work, your colleagues and superiors have great trust in you. You are a coveted talent because you create excellent performance, have a good influence on people around you and contribute to your company. You know how to maximize your strong points to create great results and prepare your future with a clear vision.

70~ 79점: **우등 직장인**

70-79 points:

You are a good worker



일을 마치기 위해 야근도 불사하는 성실한 사람이지 만, 노력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다. 프로는 절대 일을 혼자 하지 않는 법. 서로의 강점이 조화를 이룰 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생산적 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개인 역량과 열정, 소통과 협업능력이 함께 갖출 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프로페 셔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

Even though you are diligent enough to work overtime to finish your work, your efforts are not acknowledged frequently. A professional doesn't work alone. When the strong points of others are harmonized, you can generate better results than you expect and solve issues more productively. Keep in mind that you will be able to grow as a professional who is recognized by others when you are equipped with personal capabilities, passion and the ability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50~59점: 민폐 직장인

50-59 points: You are a nuisance



뚜렷한 목표 없이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아마추 어 직장인이다. 그러다 보니 주변 눈치 살피기에 바쁘 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주변 사람 들을 힘들게 한다.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 가 일하는 이유와 목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직 과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 해 자신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분석이 시급하다.

You are an amateur worker without clear goals and do only what you are told to do in your company. Since you are always busy walking on eggshells and can't do anything alone, you make people around you tired and exhausted. It is required to reestablish your goals and reasons to work in a bid to secure your competitiveness. In order to be a worker who is helpful to your organization and company, coolheaded judgment and self-analyzation are urgent.

도움: 커리어앤라이프코치 Reference: Career and Life Coach

60~ 69점: **평범한 직장인**

60-69 points:

You are a common salaryman



당신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고, 연봉도 많이 받고 싶 은 평범한 직장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성 과를 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몸값과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일할 때는 집 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모든 것을 잊고 쉬어라.

You are a common salary man who wants to be recognized in your company and receive a higher salary. It is necessary for you to clearly know your weak points to make up for them to strengthen your potential. Don't settle for the present. Prepare thoroughly to perform better and make a constant effort to increase your work performance and pay. Concentrate on your work while working and forget everything and rest when you take a rest.

49점 이하: **최악의 오피스빌런**

below 49 points:

You are the worst villain at your office



당신의 프로의식은 낙제점 수준으로 회사나 동료로부 터 불량사원으로 낙인찍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일에 소극적인 당신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도 목표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가 많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직원들이 믿고 일한 수 있는 동료가 되기 위해 생각과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보조 를 맞춰 한 발씩 즐겁게 앞으로 나가 보자.

Since your mindset as a professional is so bad, it is highly likely that you are already stigmatized as a defective employee by your company and colleagues. You are so passive that you can't create targeted results with most of your work. You have to change your way of thinking and attitude to be a colleague whom your colleagues can trust and work together. Keep pace with others to walk step by step to go forward pleasantly.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라

Turn on the Navigation in Your Life

버킷리스트가 유행한 것은 2007년 영화 '버킷리스트'가 상영된 후부터이다. 영화는 죽음을 앞에 둔 두 주인공이 한 병실을 쓰게 되면서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병실을 뛰쳐나가 이를 하나씩 실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가 크게 흥행하고 용어가 널리 알려지면서 버킷리스트는 자기계발 서적의 단골 소재가 되었다. 쳇바퀴처럼 놓아,



Since the movie "The Bucket List" was released in 2007, it has been popular to mak e such lists. The main plot follows two terminally ill men who met at a hospital and made a wish list of things to do before they "kick the bucket" and their road trip to accomplish it. After the great success of the movie, the word "bucket list" has become well known, and a popular topic of selp-help books. How about getting out of your daily routine to ponder over what you really want in life. Your bucket list that you make will serve as a navigator in your life.

삶에 버킷리스트가 필요한 이유

Why You Need a Bucket List in Life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라고 한다. 희망이 힘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삶에 희망이 있어야 활력이 생기기 마련이다.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 내부에 꿈틀거리고 있는 열정을 끄집어내야 한다. 영화 버킷리스트가 유행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을 적으며 영화 속 주인공들을 따라 하곤 했다. 그런데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는 에드워드와 카타의 버킷리스트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두 사람과 달리 '버킷리스트'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막연한 기대와 비현실적인 공상 사이에서 배회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마치 신입사원의 패기 넘치는 열정이 연차가 올라갈수록 무뎌지고, 연초의 단단했던 결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해지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열정이 식고 자신감이 사라진 것이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면, 마음속 한켠에 잠자고 있던 버킷리스트를 다시 소환해보자. 단, 버킷리스트는 복권 당첨 같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고 그것을 지속해갈 수 있는 현실적인 희망이 담겨 있어야 한다. 잠든 열정을 다시 꺼내 언젠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채워보자.

It is said that people get the most stress not when they have difficulties but when they have no hope. This is because hope provides you with the strong energy to tide over hardships. Furthermore, it is a main source of vitality with which you lead your life. That is why you have to pull yourself together and derive your arousing passion to keep your hope alive. When the movie was popular, many people made their bucket lists like the two main protagonists in the movie. However, their lists were bound to be different inherently with the one Carter and Edward made. Unlike the pair who were diagnosed with terminal illnesses, most people lack the desperation and longing the two had in making their lists. Since most people make theirs based on vague hopes and unrealistic imaginations, their lists couldn't lead them to act. Like new employees whose eager passion fizzles out as they spend more time in their workplaces, their passion and confidence gradually end up in smoke. If you feel stuck in your daily routine, summon your bucket list lying dormant in the back of your mind. However, your list shouldn't be a hazy illusion like winning the lottery, but a realistic hope with which you can begin and continue. Let's make your own bucket list with things that you can practice right now, not things you will do some day.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What You Write on the Paper Happens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아오면서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라는 영화 속 메시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바라는 현대인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다.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하며 사는 우리가 온전히 후회 없는 삶을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나를 가슴 뛰게하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충실한 하루를 위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갈 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등등 생각나는 것을 종이에 적고,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자.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목록을 만들고 이미지화시키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마음을 다잡거나, 유명 아티스트가 무대에 오르기 전 눈을 감고 완벽하게 연주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같은 이치다.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정했다면 우선 글로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성공을 자기계발서 속 단어가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다. 매 순간이 단 한 번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왜 그랬을까?'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실천적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면 꿈은 더욱 생생해지고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The quote "In life you don't regret the things you do. You regret the things you don't do" in a movie presents profound enlightment to people who want to lead a life without regrets. A life without regrets is not an easy task for those of us who have several regrets even in a day. If you don't want to feel remorse in your dying bed, it would be good to think about things that make your heart race and make you happy. When you make your bucket list to make your life flourish and make an effort to achive it everyday, you will be able to grow little by little without complacency. Write down things that pop up in your head such as what you want to have, do and accomplish and specifically imagine yourself achiving them. Making a list and making an image of it is more effective than just thinking about it. Athletes do image training before a game because they know the effect. When you set your own dreams and goals, begin the journey to accomplish them by writing them down. It is a shortcut to make success a word coined for you, not one you can find in self-help books. If you don't forget the fact that every chance is your last and only opportunity and have the practical question of "What can I do to make it better?" instead of the one "Why did I do that?" in mind, your dreams will be more vivid and come true in the near future.

15 July 2022 ***/**G



YG-1 최초의 복합재료 소재 전문 생산기지

YG-1's First Production Base that Specializes in Composite Materials

Production Team, YG-1 Technical Center in USA







미국 테크센터 생산팀

2020년 세계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하고, 1~2년 사이 글로벌 우주기업들의 우주관광 로켓 발사가 연달아 성공하며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 행,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하는 우주산업이 인공위성과 발사체(로켓), 우주관광뿐만 아니라 항 공 모빌리티, 우주 인터넷, 초정밀 내비게이션, 우주 쓰레기 처리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전에 없던 새로 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전 세계의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로 2040년에는 우주산업시장 규모가 1조 1,000억 달러(약 1,265조 원)까지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YG-1이 북미 항공우주시장 공략을 위한 테크센터를 설립하고, 항공부품 가공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미국 항공우주산업과 맥을 같이 하며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등 복 합재료용 제품과 각종 스페셜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 테크센터 생산팀을 소개한다.

Since the world's first successful private human spacecraft launch in 2020, successive successes of space tourism rocket launches by global aerospace companies in 1-2 years have brought greater attention to the new space age. The aerospace industry is emerging as a new blue ocean because the industry that combin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autonomous driving and drones is related to not only satellites, rockets and space tourism but also to expanded areas including aviation mobility, space internet, ultra-precision navigation and space waste disposal. Morgan Stanley, an American investment banking company, estimates that the global space industry could grow with active glob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to generate revenue of \$1.1 trillion in 2040. That is the reason YG-1 established Technical Center to go into the North American aerospace market and increase its investment in the machining of aerospace components. Let's meet the Production Team at the Technical Center which targets the aerospace industry in the U.S. with an emphasis on producing products for composite materials including CFRP and various special tools.

GREAT PRIDE

긍지와 사명감으로 뭉친 생산 기술자들

Production Engineers who are Equipped with Great Pride and a Sense of Mission

항공우주산업용 공구는 절삭공구 중에서도 가장 가공이 까다롭고 엄격한 정밀도를 요구하는 분야다. 극 한의 온도, 압력 및 태양 노출 등 열악한 환경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재료부터 설계, 장비, 생산까지 폭 넓은 전문성과 혁신적인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CFRP, GFRP 등 강화플라스틱과 유리/탄소섬유, 흑 연 등 비철/비금속 계열의 다양한 복합재료가 각광받는 이유도 경량화, 고강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CFRP가 철강 소재의 대체제로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절삭공구업계에서도 CFRP 가공을 위한 다 양한 제품과 성능 향상 및 공구 수명을 연장하는 가공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YG-1 내에서 복합 재료에 특화된 제조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산업에 대응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 테크센터 생산 팀이다. YG-1이 미래성장동력으로서 항공우주산업 분야를 확대하고 글로벌 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 서 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책임감과 사명감도 상당하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우주기업인 블루 오리진이 처음 민간인을 태우고 우주로 날아갈 때의 벅찬 감동은 그들에게 남다른 자부심을 선사했다. 직접 만든 CFRP용 드릴이 로켓 엔진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데 쓰이면서 팀원들 스스로 세계를 이끄는 항공우주산 업에 일조했다는 긍지를 느끼게 한 것이다. 또한, 생산팀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들을 더 강하고 긴밀하게 엮는 계기가 되었다.

Since cutting tools for the aerospace industry must process difficult materials, they require the highest precision. Extensive expertise and innovative technology which cover from materials, design, equipment to production is necessary to endure rough situations such as extreme temperature, pressure and sun exposure. That is why various composite materials including reinforced plastics like CFRP and GFRP and nonferrous/nonmetallic materials like glass/carbon fiber and graphite are getting the spotlight because weight lightening and high strengthening are possible with such materials. With the introduction of CFRP to substitute steel in many industrial areas, various products to machine the material and machining technology to improve the performance and life of such products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e Production Team at the Technical Center is in the front line for YG-1 to secure manufacturing technology



From the left Mr. Desmond Foster, Mr. Kve Park, Mr. Ian Koh, Mr. Peter Seo, Mr. Jack Jeong, Mr. Daniel Shin, Mr. Bryce Reno, Mr. Justin Kim

specializes in composite materials and respond to the aerospace industry. Since YG-1 is expanding the proportion of the industry within the company to use it as a driving force and the global competition to secure related technology is getting more severe, members of the team shoulder daunting responsibility and a sense of duty. They were overwhelmed with extraordinary pride that they had contributed to the aerospace industry to lead the world in October of last year to see Blue Origin, an American spaceflight company, sent its rocket to space with civilians on board because the drills for CFRP they made were used to manufacture key components of the rocket engine. Since the outcome was a result of the shared effort of all members of the tea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became stronger and closer.

즐겁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팀

A Team Learn Happily and Grow Together

8명으로 구성된 생산팀은 젊은 패기와 깊은 연륜이 서로 맞물려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국인 선배들은 경험으로 배 운 산지식을 현지인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후배들은 적극적으로 배우며 빠르게 실무 능력을 키워나간다. 1:1 맞춤 교육으로 셋업 기술과 5축 머시닝센터 활용법을 전수하고, 매일 제조 사이클 타임을 분석해 생산라인의 효율성 향 상을 위한 구체적인 달성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선배들의 몫이다. 선배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후배 팀원들도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도전의식과 긍정적인 태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일환 Special Production Engineer는 생산팀의 협업 비결에 대해 선후배간 활발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나이와 국적을 뛰어넘어 서로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다 보니 소속감과 함께 가족 같은 유대감이 생겼다고 말한다. 덧붙여 입사 당시에는 절삭공구가 뭔지도 몰랐던 직원이 지금은 최첨단 CNC 장비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전문 기술자로 성장했다고 말하며 생산팀의 끈끈한 동료애를 높이 평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다소 침체됐던 팀 분위기도 되살아나고 있다. 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나면서 재입사한 직원들도 있고, 생산물 량도 많아져서 더욱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친다. 그렇게 하나의 팀으로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믿음직한 성장 을 이어가고 있는 생산팀을 보니 YG-1의 앞날이 더욱 밝아 보인다.

The Production Team consists of eight members who harmonize with the youthful spirit of young workers and the seasoned experience of their superiors. Korean superiors pass down their practical knowledges to their local subordinates while the subordinates learn quickly to improve their practical skills. The superiors who are equipped with various job experiences are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one-on-one training to teach set up technology and how to use the five-axis machining center while analyzing daily manufacturing cycle time to set up practical goal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roduction line. Thanks to the unstinted support by their superiors, the subordinates of the team work passionately with a challenging spirit and positive mindset to solve problems by themselves. Mr. lan Koh, Special Production Engineer mentioned active feedback and close communication to understand each other that transcends nationality and age between superiors and subordinates are the secret behind the natural relationship and family-like bond of the team. He spoke highly of the strong comradeship of the team that made an employee who hadn't known anything about cutting tools when he joined the team but now he handles cuttingedge CNC equipment with adroitness as a professional engineer. The atmosphere that was somewhat depres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s getting better today. Since some employees are rejoining the company and the production is increasing with the recovering economy, it is expected to be more lively and energetic. The team that cooperates to grow continuously looks to lighten up the future of YG-1.







Mr. Kye Park



Mr. Ian Koh



Mr. Peter Seo



Mr. Jack Jeong



Mr. Daniel Shin



Mr. Bryce Reno



Mr. Justin Kim

고객 가치를 높이며 함께 성장하다

Grow together with Customers to Raise Their Values

최근 미국 항공여행객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90% 가까이 회복되었고, 향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주관광산업도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높은 연료 가격과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 효율성이 높은 항공기 개발에 대한 기술 혁신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를 위해 더 가볍고 강한 신소재를 찾고, 소재에 맞는 최적의 공구 선정 및 절삭공구 기술 고도화가 핵심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 보잉, 록히드 마틴,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 블루 오리진 등 세계적인 항공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미국 테크센터에서도 생산품목의 80% 이상을 CFRP용 제품에 집중하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복합소재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공공정도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고품질로 가공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한, 스페셜 제품 특성상 시장과고객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영업본부 제품전략팀 이택신 차장과 실시간 연락을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CFRP Industry Project Manager인 Dr. Abdelatif Atarsia 씨가 2달에한 번씩 미국 테크센터를 직접 방문해 산업 동향과 이슈를 분석해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일하는 환경도 국적도 다르지만, 회사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으로 세계 No.1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Airline traffic in the U.S. has recovered to 90% of pre-pandemic levels and the space tourism industry which targets civilians is expected to grow exponentially. Against this backdrop, technology innovation to develop aircrafts with high fuel efficiency to solve high fuel prices and air pollution is getting faster. In such a competitive environment, finding lighter and stronger new materials and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to select optimal tools and related technology for them are necessary to secure key competitiveness. The YG-1 Technical Center in USA that has global airline companies such as Boeing, Lockheed Martin, Gulfstream Aerospace and Blue Origin as its customers also focuses on products for CFRP with more than 80% of its production and continues to invest in securing key technologies. Since the machining processes are getting more difficult with the development of composite material technology, it is actively carrying out research on machining technology to guarantee high productivity with high quality processing. The Technical Center shares information real time with Deputy General Manager Taekshin Lee of the Product Management Team, Overseas Sales Div. at HQ and Dr. Abdelatif Atarsia, CFRP Industry Project Manager, visits the Technical Center once every two months to share analysis of industrial trends and issues to meticulously reflect what the market and customers need on special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uch products. Even though they work in different environments and have different nationalities, they share the passion and pride of YG-1 and go forward together to achieve the mutual goal of becoming the global No.1.



Mini Interview

Mr. lan Koh (고일환) Special Production Engineer

무슨 일이든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반복될 때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결국 일등 품질을 갖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밟아올라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과정을 즐기다 보면 언젠가 노력의 결실들이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은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끊임없이 가능성을 찾으며 도전하다 보면 Cutting Tools Engineer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Whatever you d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your mindset. When you repeat your determination to make the best products to yourself, it will serve as a driving force to make the products with the highest quality. It is not easy to go forward step by step. However, you can reap the fruits of your effort with great pleasure if you enjoy the process. There is nothing we can't do if we gather all our power together. Also, our work is worthy enough to take the challenge. I strongly believe that we can meet the greatest moment only a cutting tool engineer can enjoy if you keep challenging yourselves to find your potential with the pride that you are contributing to human progress.

19 July 2022 🎷 🧲



나무보다 숲을 보는 시각으로 글로벌 협업을 주도하다

Leading Global Cooperation with a Perspective to See the Forest rather than the Trees



본사 해외영업본부 제품전략림, 인서트PM림, 글로벌 Product Manager & Industry Project Manager

Product Management Team & Insert PM Team, Overseas Business Division, HQ Global Product Managers & Industry Project Managers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마다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기업 간 기술 격차가 축소되고 시장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장과 고객을 이해하고 제품 의 차별화 요소를 찾아내는 제품전략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절삭공구업계에서도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경쟁력 높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제품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빠르게 반 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협업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다.

현재 어떤 기술에 집중해야 하고, 어떤 기능/성능을 향상해야 하며, 어떻게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할지 결정해야 훌륭한 사업전략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과 관련된 모든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 와 시장정보 등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글로벌 협업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YG-1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제품 및 기술력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고 있는 본사 해외영업본부 제품전략팀과 인서트 PM팀, 그리고 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효과적인 제품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PM(Product Manager)과 IM(Industry Project Manager)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Thanks to the continuous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round them, companies are exerting their full potential to create sustainable values. Since the technology gap between corporations is closing and the competition in the market is getting harsh, the product strategies to understand the market and customers and find differentiated factors of products are gaining more importance. The cutting tool industry is also speeding up its effort to improve existing products or release new ones with higher competitiveness to diversify products. In line with this, there is an increasing importance for efficient cooperation to reflect the market trend and customers' needs quickly.

Determining things like choosing which technology to focus on, which function/performance to improve or how to carry out R&D activities efficiently is the prerequisite to practicing excellent business strategies. That is the reason global cooperation to share and utilize all knowledge, technology, ideas and market information is getting more active. Against this backdrop, this issue listens to what the Product Management Team and the Insert PM Team, Overseas Business Division at HQ have to say because they constantly upgrade products and technology to create new value and opinions for the Global Product Managers and Industry Project Managers who communicate closely with the two teams to support efficient product strategies.

PRODUCT MANAGEMENT TEAM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Sticking to the basics and principles is key to secure the leading position in the market.



제품전략팀은 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출시, 홍보, 생산, 매출, 단종, 수익성 검토까지 제품과 관련한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YG-1이 더 발전된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다 완성도 있는 제품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 이기 위해 제품 출시 후 고객 접점에 있는 모든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장 피드백을 꼼꼼히 분석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Global Cutting Tool No.1 이라는 목표 아래 생산, 연구소, 영업 등 유관부서와 협업 범위를 넓히고 글로벌 역량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The Product Management Team which is involved in the whole processes related to a product from the development phase, the release, promotion, production, sales, discontinuation, to profitability review plays a significant role for YG-1 in providing better solutions to customers. In order to provide higher quality products for higher customer satisfaction, the team devotes itself to sharing information with all departments and meticulously analyzing market feedback. Under the goal of becoming Global Cutting No.1, it is broadening the range of cooperation with related departments including production, research and sales divisions and strengthening its global potential.







* The photographs were taken under strict guarantine rules (securing social distance).

제품전략팀 신매정 부장

Maejung Shin, General Manager of Product Management Team





July 2022 7/6

21

INSERT PM TEAM



YG-1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세상에 하나뿐인 인덱서블 인서트를 만들겠습니다.

We are determined to make the one and only indexable insert with the unique technology of YG-1.



2016년 충주공장에 인덱서블 인서트 전문 생산라인이 구축되면서 만들어진 인서트PM팀은 YG-1이 신성장동력으로 집 중 육성하고 있는 인덱서블 인서트의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타사보다 한발 늦게 진출했지만,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시장 내에서 선발주자와 대등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장과 고객뿐 아니라 동종업계에서도 YG-1 인덱서블 인서트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기에 부담감과 책임감도 따르지만,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충주기술연구소와 영업팀, 글로벌 PM/IM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인덱서블 인서트 핵심 기술 확보와 기술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The Insert PM Team was mad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roduction line exclusive to indexable inserts at the Chungju Plant in 2016. It is a division that establishes and carries out the strategies to develop technology for indexable inserts that YG-1 has been intensively fostering as its new growth engine. Even though YG-1 was one step behind other companies to establish such

a division, its accumulated experience and potential have contributed to YG-1 to rival market leaders and be recognized with its quality and technology in the market. Since the team is so aware of the fact that not only the market and customers but also other companies in the industry pay keen attention to YG-1's indexable inserts, the team feels great responsibility and pressure. However, the team establishes the medium and long term roadmap and frequently communicates with the Chungju R&D Center, Sales Team, and Global Product Managers and Industry Project Managers to focus on the securement of the key technology of indexable inserts and technology advancement despite such an emotional burden.



인서트PM팀 신수용 이사

Sooyoung Shin, Director of Insert PM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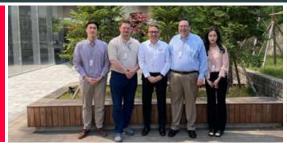
끊임없는 혁신을 주도하는 제품전략림과 글로벌 PM & IM을 소개합니다.

Let Me Introduce Constant Innovators of YG-1, the Product Management Team and Global Product Managers & Industry Project Managers.

국내외 다양한 부서와 교류하며 협업을 이끄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What are your secret to interact and cooperate with diverse divisions both in and outside of the country?

제품전략팀 Product Management Team



From the left Mr. Ohsang Shin(신오상 차장), Mr. Mark Ford, Mr. Maurizio Fontana, Mr. Steve Pilger, Ms. Dasol Lee(이다솔 사원)



Mr. Mark Ford Product Manager, Threading Tools [Global]



Mr. Steve Pilger Product Manager, Holemaking [North America]



Mr. Maurizio Fontana Product Manager, Tapping and Thread Milling IFMFAI

신오상 차장 (Ohsang Shin)

혼자보다 하나의 팀으로 일할 때 얻는 장점 중 하나가 동일한 이슈에 대해 최고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위해 열린 마음과 사고로 팀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팀원들과 일할 때도 상대방을 나의 고객이라고 가정하고, 한 사람의 고객을 대하듯 진심과 정성을 다해 마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진실한 교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성과도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at one of the advantages of working as one team rather than one person is that it is possible to make the best decision on an issue. For this, I try to have an open mindset to actively listen to what my team members say. When working with team members, I imagine that the other person is a customer to make an effort to treat him with sincerity and devotion. I believe that I can build trust while communicating sincerely with colleagues and such good relationships lead to great results.

이다솔 사원 (Dasol Lee)

업무 특성상 여러 부서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면 미팅과 conference call을 진행하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원 하는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유럽, 미주 등 각 지역을 담당하는 Global PM들 과 함께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시장별 제품 수요와 시장 잠재력,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 해 분기별로 Global PM이 방문하여 최근 시 장 동향과 이슈를 점검하며 팀워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Since our work requires close communication, we are carrying out regular face-to-face meetings and conference calls to share the progress status of the project. Particularly, we establish goals and strategies with Global Product Managers in charge of regions such as Europe and the Americas to provide products and solutions to customers and figure out product demands, market potential and customer needs in each market. Furthermore, Global Product Managers visit on a quarterly basis to check recent market trends and issues to create synergy effects and strengthen team work.

Mr. Mark Ford Product Manager, Threading Tools [Global]

신제품 개발부터 출시, 판매 종료에 이르기 까지 제품 수명 주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사 제품전략팀과 전 세계 PM 및 IM과 협 업하고 있으며, 그들과 기술적인 지식을 나 누고 성능 개선 방법을 탐구해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일은 매우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면을 통 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제품전략팀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I manage the tool life of a new product from its launch to the end of its sales. I work together with the Product Management Team at the headquarters, Global Product Managers & Industry Project Managers. I think it is an exciting and valuable job to share technological knowledge and pursue ways to improve product performance to solve problems with them. Taking this opportunity, I'd like to express thanks to the Product Management Team that has helped me enormously.

Mr. Steve Pilger Product Manager, Holemaking [North America]

저는 미국의 홀메이킹 PM으로서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품을 개발합니다. 제품의 수요와 판매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 품목을 선정하고 성능 확인을 위한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전략팀과 함께 신제품을 런칭하고 여러 브랜드의 시리즈를 확장했을 때큰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제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저와 함께하는 제품 전략팀 PM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I analyze the needs of the market and customers and develop products based on them as the Holemaking Tools product manager in the U.S. I participate in all processes for the development and sales of a product such as the selection of items to develop based on the need and sales value of a product and conducting a sample test to check the performance. I felt a special sense of accomplishment and pride when I launched new products with the Product Management Team and expanded the series of various brands. I'd like to extend great thanks to the members of the Product Management Team who have done all of the works required for product development.

Mr. Maurizio Fontana Product Manager, Tapping and Thread Milling [EMEA]

저는 고성능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을 확장,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법인과 고객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제품에 대한 기술적 지식 역시 향상하고 있습니다. YG-1의 한 일원으로 일하며, 회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일을 하며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YG-1이 절삭공구시장의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품전략팀과 모든 YG-1 직원분들의 지속적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I develop new high-performance products and expand and optimize existing ones. Also, our technical support to our global branches and partners will allow us to increase the technical application knowledge of our products. Working as part of YG-1, contributing to achieving the company's goals is always the most exciting part of the job. I will do my best to lead YG-1 to gain recognition as the market leader. Thanks a lot to our Product Management team and entire YG-1 members for your continued commi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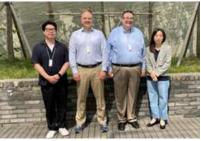
끊임없는 혁신을 주도하는 제품전략팀과 글로벌 PM & IM을 소개합니다.

Let Me Introduce Constant Innovators of YG-1, the roduct Management Team and G

YG-1 가족으로서 함께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When do you feel rewarded while working as a member of YG-1 family?

글로벌 PM & IM Global Product Managers & Industry Project Managers



From the left Mr. Juntaek Hong(홍준택 계장) Mr. Thilo Mueller, Mr. Steve Pilger, Ms. Maejung Shin(신매정 부장)



Mr. Taekshin Lee (이택신 차장)



Mr. Thilo Mueller Product Manager, Round Tools [EMEA]



Mr. Yair Bruhis Industry Project Manager, Aerospace, Power Generation and Medical [Global]



Mr. Kevin McCall Industry Project Manager, Aerospace, Power Generation and Medical [North America]



Dr. Abdelatif Atarsia Industry Project Manager, Aerospace & Composites Assembly [Global]

이택신 차장 (Taekshin Lee)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하고 있습니다. 간혹 문화 적인 차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주변에 경험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으며 다양성을 이해하고 유기적으로 협업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부서 와의 폭넓은 지원과 배려 덕분에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직 접 만나기 어려운 해외 고객의 경우 유튜브나 SNS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고 있으며, 글로벌 PM과 IM의 경험담을 들으며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I keep in mind that communication is not unilateral but bilateral. Sometimes, cultural differences hinder smooth communication. However, I listen to advice given by seasoned seniors around me to understand diversity and endeavor to cooperate closely. The extensive support and consideration by related departments have also contributed to build strong relationships for cooperation. I use YouTube or SNS channels to gain insight and listen to Global Product Managers and Industry Project Managers' experiences to expan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홍준택 계장 (Juntaek Hong)

협업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업무 협조가 많아 졌는데, 일방적인 요구 대신 '존중과 배려'를 바탕에 두고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더 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서 협 업 시에도 제품전략팀과 인서트PM팀, 글로 벌 PM&IM이 하나의 팀으로 한 명 한 명 고 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 고, 필요한 부분들을 개발하여 세계 Global No.1 목표에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 다. 최근에는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YG-1 제 품을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With the increasing trend to cooperate, there are many chances to work together. I think that respect and caring would be more efficient to draw mutual cooperation than a one-sided demand. Regarding the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the Product Management Team, Insert PM Team and Global Product Managers and Industry Project Managers are working as one team in collecting individual customers' opinions to improve insufficient parts and develop what is needed to accomplish our goal of becoming the Global No.1. Recently, we have been designing a mobile application that lets customers experience YG-1 products anytime and anywhere.

Mr. Thilo Mueller Product Manager, Round Tools [EMEA]

EMEA 지역 PM으로서 독일에 머물고 있지 만, 저의 지식과 경험을 본사 제품전략팀과 공유하며 그들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 고 개발 제품 선정부터 출시, 시장 조사 등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글로벌 분업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변 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YG-1 일원으로 서 큰 자부심을 느끼며, 함께 파트너십을 유 지하고 있는 본사 직원, 해외 PM/IM 모두가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Even though I stay in Germany as the PM in the EMEA region, I consider myself as one of the members of the Product Management Team at the headquarters and share my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the team as much as I can. I manage the product life cycle of a product from the ideation and development phase, launch, growth/harvest to the decision to discontinue. I feel great pride as a member of YG-1 that has established a clear global work division system to respond to the market changes rapidly. I think the headquarters, the R&D center, product managers and us, so called "Global talents", make an incredible team.

Mr. Yair Bruhis Industry Project Manager, Aerospace, Power Generation and Medical [Global]

임직원, 고객과 디스트리뷰터 등을 대상으로 제품 교육을 진행하고, 각 산업을 위한 애플 리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출시와 아이템 개선과 관련하여 본 사의 PM분들, 연구소, 영업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전략팀과의 협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Global YG-1의 한 가족이라는 것이 저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I carry out product training for employees, customers and distributors and solve application issues for each industry. Furthermore, I cooperate closely with PMs at the headquarters, the R&D center and sales teams to handle the release of new products and the improvement of items. The cooperation with the Product Management Team has been a great help and I think I am lucky to work with them as members of the global YG-1 family.

Mr. Kevin McCall Industry Project Manager, Aerospace, Power Generation and Medical [North America]

영업팀에 고객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고 객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툴링 솔루션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시장에서 YG-1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에 큰 보람 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추고 전 직원이 제품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도 록 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Global No.1을 목표로 모든 팀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I support customer applications to the Sales Team and provide tooling solutions for customers to accomplish their goals. I feel greatly rewarded when YG-1's brand recognition has risen. I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have expertise and make all employees equipped with product knowledge and experience.

I will make an effort with all team members to achieve the goal of becoming Global No.1.

YG-1의 '어벤저스'로 통하는 과 을 만나봅니다.

Let's Meet Trailblazers of YG-1, the and



국내외 다양한 부서와 교류하며 협업을 이끄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What are your secret to interact and cooperate with diverse divisions both in and outside of the country?

이화수 차장 (Hwasu Lee)

급변하는 시장과 고객에 대응하기 위해 시공간의 제약 을 뛰어넘으며,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소통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팀별 회의, 제품 관련 미팅, 충주 R&D/인서트PM 회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회 의가 수동적인 소통이라면 흡연구역에서 여러 인원을 만 나 나누는 대화 또는 전화 한 통이 공간 변화에 따른 원 활한 소통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응대 면에서 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Free communication that transcends conventional methods as well as time and space is getting more important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market and customers. I think that while meetings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team meetings, product meetings and Chungju R&D/insert meetings cause a passive way of communication, talks at a smoking area with colleagues or a phone call can generate a smooth communication due to spatial changes. In the perspective of serving customers, I make an effort to share information to provide the best solution to customers in order to give them satisfaction and trust.

조준호 대리 (Junho Cho)

YG-1의 인덱서블 인서트가 세계 무대에서 브랜드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 부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 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부서 간 역지사 지의 관점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됐을 때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진정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 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서트PM팀에서는 연구소에서 전달받은 기술적인 지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판매 지원을 위해 영업부서에 관련 기술자료를 바탕으 로 차별화된 셀링 포인트를 제공하면서 팀플레이를 활 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In order for YG-1 indexable inserts to reinforce its brand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stage, all departments have to build a consensus and work more proactively. When every division puts itself in others' shoes and helps each other, such interactions will lead to tru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he insert PM team puts emphasis on understanding the technological knowledge given from the R&D center accurately and providing efficient differentiated selling points to the Sales Team to support sales in an effort to activate team play.



From the left Mr. Junho Cho(조준호 대리), Mr. Hwasu Lee(이화수 차장), Mr. Yair Bruhis, Mr. Sooyoung Shin(신수용 이사), Dr. Abdelatif Atarsia



Dr. Robert Damaschek Product Manager. Indexable Tools [EMEA]



Mr. Jan Andersson Product Management, Indexable Inserts [Americas]

YG-1 가족으로서 함께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When do you feel rewarded while working as a member of YG-1 family?

Dr. Robert Damaschek Product Manager, Indexable Tools [EMEA]

EMEA 지역의 인덱서블 인서트 판매와 관련해 폭넓은 직 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제품전략을 위해 충주 R&D 연구소, 본사 인서트PM팀과 제품 파이프라인 및 주 요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사 이 연평균 성장률 35~50%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일하는 즐거움도 더욱 커졌고, 향후 5~10년 이내에 YG-10 선두로 올라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I am in charge of various works related to the sales of indexable inserts in the EMEA area and constantly discuss product pipelines and major issues with the Chungju R&D Center and Insert PM Team for efficient product strategies.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35-50% in the last several years has made me work more happily. I strongly believe that YG-1 is going to become the market leader in 5-10 years.

Mr. Jan Andersson Product Management, Indexable Inserts [Americas]

제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기술/영업 지원과 재고 관 리, 마케팅 및 PR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서와 협력하며 YG-1 인덱서블 인서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서트PM팀과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 으며, 시장에서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그리고 대외 적으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I manage the product portfolio and work together with various divisions to do works from technology/ sales support, stock management, marketing to PR to make YG-1 indexable inserts expand their influence in the global market. Particularly, I communicate with the Insert PM Team every day to share goals and strategies. I feel great pride when the values of our products are recognized in the market and my ability is recognized externally.

COME TOGETHER 👸

같은 꿈을 꾸고, 같이 이루어가는 여정

A Journey to Accomplish Shared Dreams

멕시코법인 고객서비스 총괄 에더 코르테스 씨 가족

Family of Mr. Eder Cortes, Customer Service Supervisor at YG-1 Mexico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부부를 '더 좋은 나의 반쪽(the better half)'이라 불렀다고 한다. 원래 남녀가 한데 묶여 한 벌로 만들어졌는데 붙어있는 남녀가 너무 정답게 지내는 모습에 시기심 이 생긴 제우스가 칼로 남녀를 둘로 쪼개버렸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부부생활은 나보다 훌륭한 나의 반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반쪽이 만나 완전한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은 백년해로의 기본이 된다. 멕시코법인에서 모범적인 부부의 좋은 예를 보 여주고 있는 코르테스 씨, 멘도사 씨 부부의 행복 비결도 다르지 않다. 서로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며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평생 반려자가 되어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It is said that the ancient Greeks called their spouses their better halves. The expression is considered to originate from the Greek myth that Zeus split humans who were originally created with four arms, four legs and a head with two faces into two separate parts because he envied their deep affection. However, a marriage life is not seeking my half who is better than me but a course for two different halves to meet and become complete. It is admitting my own shortcomings and accept my spouse as a person who is better than me. The mindset to respect the other is the key for a couple to live together in happy union during their joint lives. The secret behind the happiness of Mr. Cortes and Ms. Mendoza, an exemplary couple in YG-1 Mexico, is no different. They provide unlimited trust, support and encouragement to each other. This is a story of a couple who are lifelong soulmates and supporters for one another.



26 July 2022 ***//**5







가족이 함께 그려가는 행복의 로드맵

A Road Map Drawn by All Family Members

코르테스 씨는 2011년 YG-1에 입사해 멕시코법인에서 가장 오래 일한 직원 중 한 명이다. 처음 임원 운전기사로 시작해 물류 부문을 거쳐 현재는 고객 서비스 책임자로 일한다. 그는 YG-1에 몸담으면서 노력으로 안 될 것이 없다는 긍정적인 태도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도전 마인드를 배웠다고 한다. 무슨 문제든 서로 의논하고 함께 했던 동료들과의 팀워크도 그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 준 원동력이다. 그렇게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일에 대한흥미도 높아졌고,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는 성취감도 쌓여갔다.

"맥도날드에서 멕시코 법인장에게 고용된 말단 직원에 불과했던 제가 고객서비스 분야 관리자라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제 꿈을 펼칠수 있도록 믿어주고 배려해 준 YG-1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회사의 크고 작은 굴곡을 함께 겪으면서 회사가 변화하고 성장한 만큼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버텼기 때문에 오래 일한 것이 아닌, 남들보다 뛰어난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일에 있어서 빈틈없고, 타협하지 않는 부부지만, 아이에게만큼은 유연하고 관대한 편이다. 부부는 아들 이안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인성을 갖춘 훌륭한성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듯 닮은 부부의 열정이 아들 이안이의 내일에행복의 주단을 깔아줄 것만 같다.

Mr. Cortes who joined YG-1 in 2011 is one of the longest serving employees in YG-1 Mexico. He started his career in YG-1 as a driver for an executive and is now the customer service supervisor in the branch. He said that what he has learnt in the company is a positive mindset that there is nothing he can't do with his effort and a challenging spirit that everything comes true if he doesn't give up. Another driving force for him to go forward without a halt is his colleagues and the strong teamwork to discuss and get over all obstacles. While learning new things, his interest in work and sense of accomplishment to raise his ability to a higher level have also increased. "I was a young man who was hired as a driver in a McDonald's by the CEO of YG-1 Mexico have become the customer service supervisor. I am so proud of myself for what I have achieved. I'd like to express great thanks to YG-1 for trusting me and providing support and caring to make my dreams come true", he commented and added that as much as the company changes and grows, he could also mature by the small and large hardships he has gone through with YG-1. His achievement for such a long time has been possible because he has worked with a greater sense of responsibility and ownership mindset than others. Even though the couple is strict and makes no compromise in work, they are flexible and generous to their child. The couple agreed that they want him to grow to be a respectable adult who is thankful of small things and has good characteristics. Such enthusiasm of the couple who are similar but different seems to serve as a beacon for their son, lan, to lead a happy life.

27 July 2022 ***//**5



아내 멘도사 씨는 2016년부터 5년 동안 멕시코법인에서 근무하며 안내, 고객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맡 았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꼼꼼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녀의 성격은 회사생활에도 긍정적으로 작 용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혹시 남편에게 누를 끼칠까,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게 약점이 되지 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입사하고 보니 남편은 까마득한 대선배 중 한 명일뿐 그 이상도 이 하도 아니었다고 한다. "처음 입사했을 때 남편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든, 무엇이든 항상 배울 것이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퇴사했지만, 5년 동안 믿고 지 지해 준 회사와 동료 분들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묵직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 을 다하며 성장해가는 남편에게 큰 자부심을 느낀다. 남편 코르테스 씨도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믿고 따라 와 주는 아내가 있기에 회사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서로 가 거울이었고,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코르테스 씨는 YG-1과 함께 보낸 지난 10년을 최고의 인생 프 로젝트 중 하나라고 말할 만큼 회사와 일에 대해 진심이다. 일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해서 작은 일을 하 더라도 허투루 하는 법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니 성과는 자연 스 럽게 따라왔다. 열정 가득한 부부는 그렇게 서로에게 드림 파트너가 되어주며 함께 성장해가는 중이다.

Ms. Mendoza had worked in YG-1 Mexico for 5 years since 2016 and she had been in charge of various works such as receptionist, customer service, etc. Her personality to do her best and seek perfection in everything was a positive factor to work in the company. Even though she worried if she would be a burden to her husband or working together at the same workplace could be a weak point in the beginning, she soon realized that he was no more and no less than one of the seniors in the workplace. "He helped me a lot to quickly adapt to the company when I first joined YG-1. He advised me not to give up and I could always learn something anywhere and anytime. Even though I don't work in the branch anymore, I could work happily thanks to the company and colleagues who provided great support and trust for the 5 years", she said and expressed her pride in her husband who makes his best effort to do his work and grow further. Mr. Cortes also delivered unstinted praise to his wife that he could devote to the company thanks to her who provides warm support and follows his will. They act as a mirror reflecting themselves as well as great supporters at home or work. Mr. Cortes is sincere about the company and his work as much as he mentions the last 10 years he has spent at YG-1 is one of the best projects in his life. Since he is so thorough about his work and does his best in even a trivial thing with his full potential and concentration, it is not surprising that he could create good results. The passionate couple are serving as dream partners for each other to grow together.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부부

A Couple Respecting One Another

코르테스 씨, 멘도사 씨는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지만, 마치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처럼 깊고 잔잔해 보였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부애와 끈끈한 가족애가 어우러져 가장 소중하고 단단한 유대관계 를 만들어낸 것이다. 처음부터 정해둔 건 아니었지만,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다 보니 크게 싸울 일 도 없다고 한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 일상을 나누면서 가족 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르테스 씨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 이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멘도사 씨도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관심사를 찾으려고 노력한 점이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덧붙였다. 깊고 넓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서로에게 최고의 동반자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남편은 아내의 현명하고 지혜로움을, 아내는 일에 대한 남편의 열정을 서로 존중하고 배워나간다. 단지 로맨틱하게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서로 존중하는 동반자로서 서로를 돌보며 응원하는 부부의 모습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은 부부를 모든 것을 포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관계'로 만들었다. 그리고 일심동체가 아니라 멋진 미래를 위해 협업하는 팀으로서 더 가깝지도, 더 멀지도 않은 위치에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다독여가며 가족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Mr. Cortes and Ms. Mendoza have been married to each other for about 5 years, but they have the calm and harmonized atmosphere of an old couple who have spent a long time together. Behind the strong and precious relationship is the strong conjugal love to respect and care for each other as a family. They haven't experienced any conflicts because they have solved all issues with communication even though they didn't intentionally set a rule to do so from the beginn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y family is 'communication'. We are making an effort to communicate as much as we can to share our daily life to do things together to make us happier", Mr. Cortes added that a mindset to accept the differences and respect each other is most important like all human relationships.

She revealed another secret to maintain their happiness. It is the effort to seek new interests that make them get out of their routines and do things together. Deep and wide communication during such activities helps them understand one another and provide strong belief that they are the best partners for each other. While



spending time together is a good opportunity for the husband to learn and respect his wife's wisdom and prudence and for the wife her husband's passion about his work. The romantic and loving couple make up for the weak points of each other, support and respect one another as partners. Their habit of positively accepting the world in the given environment has helped them not give up on anything but accomplish everything they want. As a team that cooperates with each other to create an excellent future, they stand by each other to support and encourage one another to find the happiness in the family.

29 July 2022 ***/**G



YG ON-AIR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영업전략: 유럽법인

YG-1 Europe's Business Strategy to Respond to the Chang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코로나 팬데믹이 끝을 향해 간다는 발표도 있지만, 아직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 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 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개인과 기업 모두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마 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다가오는 변화에 맞서 새로운 방식으로 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도 강해졌다. YG-1 유럽법인도 예외는 아니 다. 이번 호에서는 새로 부임한 유춘식 법인장으로부터 YG-1 유럽법인의 포스 트 코로나 시대 생존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Despite some predictions that the COVID-19 pandemic will come to an end soon, there are still lingering worries about anxieties and uncertainties that infectious diseases may bring about. With the non-contact trend that has become commonplace and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oth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face a whirlwind of great changes. The COVID crisis has strengthened the recognition that incoming challenges will require enormous changes in what we think and do. YG-1 Europe is no exception. Let's hear from Mr. Chunsik You, the newly appointed President, about the survival strategies of YG-1 Europe in the post-COVID-19 era.



0 유럽 절삭공구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How i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utting tools market in Europe?

코로나19는 유럽 절삭공구시장에 중요한 3가지(정보전달, 경쟁구도, 수요)를 변화시켰으며, 앞으로 변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이 줄곧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 왔지만, 코로나19 전에는 기업 스스로 그 속도와 폭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시장의 환경 자체를 바꾸었고,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도 못 한 채 본격적인 언택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영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제품 정보의 전달방법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유럽 절삭공구시장에서는 기존의 제품개발 경쟁 외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중요한 기업경 쟁력으로 부각된 공급망 고도화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매출 성장을 원하면서도 재고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대리점 및 판매상들의 상충하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절삭공구의 수요 측면을 보면, 언택트 문화가 승용차의 이동량을 감소시켜 신차 수요를 감소시킬수 있고,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 공유 트렌드가 지금보다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The pandemic has caused significant changes in three major factors (information delivery, competitive composition and demand) in the cutting tool market in Europe and they are expected to deteriorate in the future. Companies had pursued new values with changes and innovation controlling the speed and volume of such changes by themselves before the COVID-19 crisis. However, hectic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market caused by the pandemic haven't allowed them to take time to prepare for the full-scale non-contact era. The biggest change in the sales section is the ways to deliver product information from contact to non-contact. Added to the existing product development competition, the necessity to advance the supply chain management has emerged as a key competitive edge of a company in the European cutting tool market. On top of that, another task to meet the demand of distributors and dealers who want sales increases but don't want to shoulder the burden of maintaining inventory has come out. In the perspective of cutting tool demand, the non-contact culture is predicted to reduce vehicle traffic and the demand for new cars and spread the new car sharing trend.



유럽법인 유춘식 법인장 Mr. Chunsik You, President, YG-1 Europe

○ YG-1 유럽법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How does YG-1 Europe prepare for the post-COVID-19 era?

코로나19 시기 전자정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던 판매상과 소비자들이 지난 2년 동안의 학습효과로 높아진 비대면 비즈네스 활용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객은 구매 결정을 위한 더욱 많은 양의 디지털 정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양질의 전자정보를 더욱 빠르게 제공하는 공급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YG-1 유럽법인은 고객지향형 전자상거래 통합시스템을 목표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해 왔고,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물류 부문, 특히 효율적인 제품창고 운영방법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 가동될 계획이며, YG-1 유럽법인고객들에게 더 많은 맞춤 정보를 더욱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ealers and customers who have depended on electronic information during the COVID-19 period are predicted to maintain the utilization of such information based on what they have learnt during the past two years. Therefore, customers will require more digital information to make their purchase decision, so I believe that they will prefer a supplier who can provide quality digital information more quickly. In order to meet such rapidly changing demands of customers, YG-1 Europe has carried out several projects simultaneously under the goal of the integrated customer-oriented e-commerce system, the software development project and some researchers particularly on the effective warehouse management. Such on-going projects are projected to be in full operation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provide more targeted and faster information to the customers of YG-1 Europe.

31 July 2022 ***/**©

③ 글로벌 탑 리어 도약을 위한 YG-1 유럽법인의 경쟁 우위 전략은 무엇인가요?

What are YG-1 Europe's strategies to take a big leap forward to be a top-tier global company?

'연결을 통한 시너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지역에는 YG-1의 글로벌 자원이 많습니다. 특히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그리고 기술적 자원들을 고객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연결하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PM, IM, KAM 등의 인적자원과 각 법인에 소속된 영업사원들의 지식을 연결하고, 그 바탕 위에 인적자원들의 활동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Cutting Tools Specialist들의 전문 지식과 Field Sales Engineer의 현장 지식이 결합될 때 인적자원의 효과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YG-1 유럽법인은 그룹 내 해외법인 중 가장 많은 물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빠른 배송과 적정한 재고의 구축이 현 단계의 업무 목표지만, 향후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법인이 보유 중인 개별 재고와 EMEA 물류센터의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물류 최적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독일 테크센터 또한 유럽 지역의 중요한 기술적 자원 중 하나입니다. 테크센터의 기술인력과 정밀장비 그리고 대형 유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KAM(Key Account Management)팀의 활동이 잘 융합된다면 유럽의 각 법인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We pursue "a synergy strategy utilizing connection". There are many global resources of YG-1 in Europe. Our recent goal is to connect them, particularly human, material and technological resources in a direction that our customers need. Specifically, we want to connect human resources such as PMs, IMs and KAM and the knowledge of salespeople at each branch and maximize the activities of such human resources based on that foundation. It's because we think that the efficiency of human resources can be realized when the professional knowledge of cutting tool specialists and the practical knowledge of field sales engineers are combined. In addition, YG-1 has the most human resources among all overseas branches in the YG-1 group. Even though our current business goal is to establish a system for quick delivery and proper inventory, we are going to set up an optimal logistics plan to efficiently manage and operate the individual inventory of each branch and the stock at the EMEA logistics center based on the data that will be accumulated in the future. The YG-1 Technology Center GmbH that can play a leading role as a total solution provider is one of the major technological resources in Europe. If the activities of the technical professionals and precision equipment at the Technology Center and the KAM (Key Account Management) team that has established close relationships with big users are integrated greatly, they will be able to contribute greatly to each branch in Europe in creating new markets and increasing its share in the market.

YG-1 유럽법인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Would you introduce the digital transformation project carried out at YG-1 Europe?

다수의 디지털화 프로젝트 중 OOS(Online Ordering System), SAP customizing, WMS(Ware house Management System)는 별도의 프로젝트지만, YGEU 업무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이 됩니다. 이를 위해 담당 매니저들이 다수의 외부개발업체 그리고 본사 전산팀과 협업해 개발 중이며, 향후 YGEU의 핵심 경쟁력 중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고객이 온라인에서 YGEU의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하는 OOS가 시스템의 시작이고, 본사와 연결된 중앙시스템인 SAP로 전송되면 이곳에서 고객의 배송조건, 가격, 재고 분배 등 복합적인 조건을 자동 처리하여, 그 결과가 WMS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또한, WMS는 물류창고 내 제품을 선별하고 포장 제품의 입출고 절차를 자동 처리하며, 배송회사에 데이터를 전송한 후 배송창고에서 처리된 모든 정보를 다시 SAP로 전송함으로써 주문과 배송을 연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배송시간을 단축하고 오류를 제거하게 되면 고객 서비스 만족도도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서 프로젝트를 담당한 매니저들과 협업해주신 본사의 모든 관련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YGEU의 전자상거래 통합시스템이 안정화되면 EMEA 지역 내 해외법인도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ven though the OOS (Online Ordering System), SAP customizing, and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are carried out separately among several digitalization projects, they will serve as a backbone which connects business systems in YGEU into one. To this end, managers in charge are cooperating with various outside developers and the Computer Team at the headquarters are working together to develop such a system and it is expected to become a key to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To be specific, the OOS that let customers order online through YGEU's computer system is the start of the system. When the order is sent to SAP, the central system connected to the headquarters, complex conditions such as the delivery condition, price, and inventory distribution for the customer are automatically processed and the results will be sent to the WMS system. In addition, it is a system that connects order and delivery. In the system, the WMS selects products in the warehouse, automatically process the receiving and forwarding of the products, send the data to a delivery company and send the information related to all processes of the products happening in the warehouse to SAP. When this system reduces delivery time and errors, customers' satisfaction about our service will improve greatly. Taking this opportunity, I'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thanks to the managers in charge of this project and all related people at the headquarters for their cooperation. I expect that YGEU's integrated e-commerce system will be applied to all overseas branches as soon as it is stabilized.

● 지난 5월 개최된 JEC World 2022에서 유럽법인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What are the accomplishments of YGEU at JEC World 2022 in May?

JEC World 2022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소재 전시회로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2년 만에 열렸으며 자동차, 항공기 등 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최신 복합소재 기술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JEC 참가업체들을 계열화하여 설명 드리자면, 탄소원사, 탄소섬유, 수지, 성형, 표면처리업체들이 주로 참여하였고 steel과 CFRP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제품을 개발한 업체도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3D 프린팅, 몰드식 성형, 감기식 성형 등 성형업체들이 많았는데, 나사 가공을 위한 너트베이스를 심는 방법 등 기계 가공을 최소화하는 성형 단계 개발 노력이 보였습니다. 표면처리업체는 크게 라미네이팅과 브러쉬 광택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미국의 CFRP Industry Project Manager와 YG-1 France 영업팀이 참가하여 19개국 47개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각국의 YG-1 해외법인에 미팅 결과를 인계하여 현재 담당 국가에서 심층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돌아보면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CFRP가 점점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추세로 보이나, 아직 항공기 제조사를 포함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매뉴일 작업을 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어 품질 표준화, 높은 제조단가, 환경문제 등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 중이고, 그런 과정에서 활용범위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 복합 재료 특히 CFRP 관련 산업이 다소 정체하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절삭공구시장에서 미래지향형 가공소재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므로 복합소재 부문의 기술발전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EC World 2022 is the biggest composite material exhibition held every year in Paris, France. It was held for the first time in two years due to the COVID-19 crisis and provided an opportunity to see state-of-the-art composite material technologies that are used for products in the automotive and aerospace industries. Mentioning systematically, major participants of JEC were carbon thread, carbon fiber, resin, molding and surface treatment companies and companies that developed hybrid products utilizing steel and CFRP also took part in the event. In particular, there were many molding companies which specialize in 3D printing, mold type molding and coil type molding and their effort to develop ways to minimize machining at the molding process such as the method to install a nut base for screw machining. Laminating and brush polishing companies were the main participants in the surface treatment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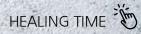
CFRP Industry Project Manager from the U.S. and the Sales Team from YG-1 France took part in the exhibition and consulted 47 customers from 19 countries. The results of such consultations have been sent to related YG-1 overseas branches which are carrying out in-depth consultations. Looking back on the exhibition, not only in everyday life but also in all industries, CFRP is used more widely. However, except for some companies including aerospace manufacturers, corporations remain at the stage of preparing manuals and try to overcome the limits of quality standardization, high manufacturing cost and environmental issues. Against this backdrop, the scope of CFRP utilization is getting wider. Even though the composite material industry, particularly CFRP seem to be sluggish, we have to pay keen attention to the technology development trend in the composite material sector since it is clear that they are future oriented process materials in the cutting tool industry.

YG-1 유럽법인의 새로운 법인장으로서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s the new president of YG-1 Europe, please tell us how you feel and what plan you have.

유럽은 YG-1의 중요한 시장으로서 앞으로 그룹 매출 및 기술을 선도할 시장입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를 다수 확보하고 있고, 판매법인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른 대륙에 비해 고객사의 품질 수준과 기술력도 매우 높은 편이어서 Solution Provider로서 시장을 선도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룹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인재들의 활동과 능력이 조화롭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고, 유럽지역 내모든 해외법인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아가려고 합니다. 인적자원 능력의 연결 그리고 법인 간 장점의 연결이 단기 목표이며, 향후인적자원과 법인의 장점을 융합하여 YG-1 유럽법인의 고유한 경쟁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Since Europe is an important market for YG-1, the market will lead YG-1 group's sales and technology. It is where we have many global talents and the greatest number of sales branches. Since the customers in Europe have higher quality and technology compared to those in other continents, it has very favorable advantages to lead the market as a solution provider. We are going to play a catalyst role for global talents to use their activities and capabilities harmoniously to create synergy effects to achieve the goal of YG-1 group and be a center for all overseas branches in Europe to learn and grow together. Our short-term goal is to connect the ability of human resources and all advantages of branches. We will integrate the strong points of human resources and branches to make them a unique competitiveness of YG-1 Europe.



'착한 소비'로 떠오른 비건 트렌드

Veganism, An Emerging Trend for "Good-hearted Consumption"

몇 년 전부터 채식주의가 세계 식문화 흐름을 주도하는 하나의 트 렌드로 떠오르며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비건이 엄연한 라이프스 타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식량난 그 리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주효하게 작 용했다. 특히 동물복지, 환경보호 등 사회적, 윤리적 가치관이 확산 되면서 국내 채식 인구도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과거에 중장년층이 건강과 체질적인 이유로 관심을 가졌다면, 요즘 에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표출하는 방식의 하나로 비건 식품을 선택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다. 새로운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 한 MZ세대가 비건 트렌드를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에는 '비거노믹스(veganomics)' 라는 말이 주목받으며 시장이 확 장되어 가는 중이다. 비거노믹스는 채식주의를 뜻하는 비건(vegan) 에 경제(economics)를 붙여 만들어진 신조어로 동물성 재료를 쓰 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산업 전반을 아우른다. 2~3년 전만 해도 일 부 식음료에 한정됐던 비건 관련 산업은 이제 패션·뷰티·생활용품 을 비롯해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산업까지 영역이 확대됐다. 단지 채 식주의자 정도로 떠올려지던 비건이 하나의 가치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비건 트렌드의

이유 있는 열풍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식주의자라고 하면 종교적인 이유가 있거 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되묻곤 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 '채식'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과거 고기 없는 식단이 외면받 았던 것과 달리 국내에서도 건강과 환경 등을 이유로 채식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건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다양해졌 다. 알레르기로 채식을 해야 하는 사람부터 건강을 위해 찾는 사람. 신념으로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 등 각기 다른 이유로 비건 식당을 방 문한다. 요즘에는 채식과 상관없이 핫플레이스로 소문이 나면서 일부 러 찾아가기도 하고, 한국 고유의 비건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찰음 식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비건이 인 기를 얻는 배경에는 'MZ세대'와 '가치소비'라는 키워드가 숨어있다고 말한다. 물건의 가성비보다 본인이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소비하고,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서 사회문제에 동참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건 실천을 장려하는 행 사나 FSG 캠페인을 전개하는 기업도, 동참하는 개인들도 점차 많아. 지고 있다.

비건 트렌드가 대중화되면서 동물 윤리와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거니즘(veganism)도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 비거니즘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든 욕구가 담겨있다. '채식'에는 건강에 대한 욕구, '친환경'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 '동물복지'에는 이타성을 추구함으로써 얻는 행복함과 만족감에 대한 욕구가 서로 얽혀 있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소비 트렌드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



건강을 위해 For Healty



기후 위기를 위해 For Earth



반려동물을 위해 For Animal



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는 식품업계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고 공장식 축산업의 바이러스 위험성에 대해인지하면서 비건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것도 사실이다. 이에 힘입어 대체육 제품과 대체육을 활용한 가공식품 등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비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는 별도의 비건식품 판매존을 만들고, 뷰티업계에서는 화장품 제조·가공 단계에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거나,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크루얼티 프리'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패션과 자동차업계에서도 비건 레더(vegan leather)에 주목하며 비건 자동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채식주의자 10명 중 7명은 건강과 동물보호 때문이라고 한다. 비건의 최초 동기가 윤리적 문제, 즉 동물의 희생을 피하려는 데서 시작된다는 의미다. 반려 인구의 증가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비건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물의 권리 보호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화장품 실험실에서 테스터로 일하는 토끼의 삶을 다룬 단편영화 '랄프를구해줘' 한국판이 공개됐다. 이 영화는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IS)과 할리우드 감독 스펜서 서저가 동물실험반대를 촉구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개봉 당시 소셜미디어 조회 수1억 5천만 회, 틱톡 태그 7억 3천만 회 등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 동물 실험에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고, SNS에서 진행된 #SaveRalph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갔다. 특히 멕시코를 북미 지역 최초이자전 세계 41번째로 '화장품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국가로 만든 일등공신이 '랄프를 구해줘'라고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비건과 채식주의자는

뭐가 다를까?

비건, 베지테리언이라는 말을 많이 듣긴 하는데, 비건과 채식주의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은 드물다. 거기다 채식주의자 용어도 단계별로 달라서 비건 초보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지기 쉽다. 우선 비건과 채식 주의자는 엄연히 다르다. 채식주의자는 육식을 되도록 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다. 채식주의자가 넓은 범위의 채 식을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면, 비건은 채식주의자의 한 단계를 뜻한 다. 또, 일반적으로 채식주의자를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채 소, 야채를 뜻하는 베지터블(vegetable)에서 파생된 말이다. 채식주 의자는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에 따라 크게 베지테리언, 세미 베지 테리언으로 나뉜다. 베지테리언은 채소, 유제품을 주로 섭취하고 세미 베지테리언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제외한 유제품 및 어류를 섭취한 다. 여기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느냐에 따라 베지테리언은 비건 과 오보, 락토, 락토 오보로 나뉘며 세미 베지테리언은 페스코, 폴로, 플렉시테리언으로 다시 나뉜다.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채식주의 자는 비건이다. 비건은 유제품이나 달걀 같은 동물의 알, 꿀 등 동물에 서 만들어지는 음식뿐만 아니라 가죽옷이나 동물실험 화장품,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비건과 비슷하지만 락토 베지테리언은 우유와 유제품, 꿀 등은 먹고 육류, 생선, 동물의 알은 먹지 않는 이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우유, 치 조, 버터 등 동물을 해치지 않는 유제품은 섭취한다. 이와 반대로 유제 품은 먹지 않지만, 동물의 알은 먹는 이들은 오보 베지테리언으로 분 류된다. 좀 더 나아가 고기만 먹지 않고 유제품과 동물의 알은 먹는 채식주의자는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이라 부르는데, 서양권에서 채식







하는 이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채식주의자여도 특정한 육류만 섭취하는 이들도 있다. 세미 베지테리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우유, 달걀 등은 먹지만, 어떤 고기를 먹느냐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뉜다. 생선이나 해산물을 먹으면 페스코 베지테리언, 생선과 닭고기는 먹지만 붉은 살코기는 먹지 않는 폴로 베지테리언, 채식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육식을 하는 경우를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한다. 가장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채식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주 2~3회, 혹은 하루 한 끼 정도만 채식을 먹고 평소에는 일반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간헐적 채식주의자를 플렉시테리언으로 부르며,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인기가 높다.



비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비건이라고 육류 요리만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매번 토끼처럼 풀만 먹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먹을 때 젓갈을 빼고 만든 김치를 먹고, 빵을 먹을 때 우유와 달걀, 버터가 포함되지 않은 바게트, 베이글, 통밀빵 등을 먹거나 동물성 크림 대신 식물성 크림, 우유 대신 두유를 넣은 빵과 케이크, 도넛과 쿠키를 먹으면 된다. 라면이나 국수 등 면류를 먹을 때도 고기나 해산물 등 육류로 국물을 내지 말고다시마, 양배추, 무, 버섯 등 채수로 국물을 내서 먹을 수 있다. 마트나 인터넷쇼핑몰에도 비건 음식이 많이 나와 있으니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다만 식품을 고를 때성분 라벨을 확인해 동물성 재료가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물성 재료 100%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로 성분표를 확인해보면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나육수, 분말수프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비건인증 마크가 있다면 고민 없이 구매해도 된다.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의 장점으로 꼽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건강이다. 누군가는 채식주의를 '건강한 편식'이라고 말한다.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한다고 하지만, 하루 아침에 식단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채식을 시작하기 전에 채식은 맛이 없고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는 고정관념도 버려야 한다.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짠맛, 단맛, 신맛 외에도 향과 식감, 수분감, 밸런스 등에 집중해 식사하면 훨씬 풍부한 식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의외로 비건 음식은 다양하고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과 다르지 않다. 콩과 곡물에서 생산되는 식물성 고기가 육류를 대체하고, 우유 대신 두유로 바꿔 먹거나콩, 아몬드, 귀리 등 식물성 원료에서 단백질, 지방을 추출해 만든 대체 유제품을 먹을 수 있다. 심지어 녹두로 만든 식물성 대체 달 결도 출시되어 유통되고 있다. 우선 고기를 안 먹는다는 생각 대신 평소 즐겨 먹던 식품을 하나씩 식물성으로 바꿔보자. 비건 식단에도 먹는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걸알 수 있다.

















열정을 나누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Sharing Passion for a Better Tomorrow

무슨 일을 할 때 의욕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함께 있으면 기분 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열정'에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즐거워하며,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열정'이라는 백신을 전달해줍니다. 하지만 세상에 모든일이 열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열정이꼭 필요한 것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열정은 그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는 팀워크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최장기간 이끈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당시 데이비드 베컴, 반 니스텔루이, 로이 킨 등 스타 플레이어를 퇴출한 것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그의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팀워크를 해치는 선수라면 그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슈퍼스타도 가차 없이 퇴출시켜 맨유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은 천재 한 명의 성과보다 평범한 인재들이 모여 만든 강력한 팀의 성과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연못에 던진 돌이 물결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열정의 팀워크가 거대한 힘의물결로 넓게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From. 본사 해외영업본부 제품홍보팀 박유진 사원

To. 본사 해외영업본부 인서트PM팀

조준호 대리

인서트PM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해주시는 제품 교육을 받으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서트 제품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교육해주시는 PM분들 모두 감사드리지만, 이번에는 YG-1 제품 교육 일타 강사! 인서트PM팀 조준호 대리님을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해 제품을 이해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는데 신입사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치 있으면서도 적절한 예시로 비교 설명해주셔서 내용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기 교육이라 매번 자료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늘 꼼꼼히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도 이것저것 여쭤보는 게 많은데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주시는 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모로 도움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From. 본사 가격관리팀 이재성 대리

To. 중앙기술연구소 Holemaking팀

정승호 대리

그동안 정말 수많은 좋은 동료들을 마주하면서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는데, 쑥스럽지만 연구소에 계신 정 승호 대리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쁜 와중에 사소한 질문에도 성심껏 답변해주며, 복잡하고 난해한 업무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줍니다. 간혹 발생하는 긴급 건에 대해서도 즉각 판단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변수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업무에지기 마련이고 힘든 순간들이 많겠지만, 정승호 대리는 단 한 순간도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개성 넘치는 말투로 유쾌하고 호탕한 모습을 보여줘 저를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분을 환기할 수있는 에너지를 전달해줍니다. 저와 6~7년 정도 함께업무를 했는데 늘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From. 본사 전산실 김명곤 부장

To. 본사 경영지원본부 인사총무팀

김장훈 과장

먼저 저를 칭찬해 주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좋은 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굳이 한 명을 꼽자면 인사총무팀의 김장훈 과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업무 관련 책을 항상 옆에 두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반성했습니다. 저도 SAP를 처음 배울 때 봤던 책이라 내용을 기억하고 있고,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찾아보고 있는 책이더군요. 책의 장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으면서도 그렇게 끼고 살지는 못하는데, 노력하는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배움의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김장훈 과장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모습을 유지하여 사내최고의 인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동차산업을 위한 YG-1 툴링 솔루션의 혁신

Innovation in YG-1 Tooling Solutions for Automotive Industry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속에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절삭공구업계도 디지털 제조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가공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절삭 공구시장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경쟁구도를 형성하며 더 많은 고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해 수상한 중국 골든 프론티어상은 급변하는 시장의 중심에서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YG-1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Fine Spindling Tooling'에 담긴 혁신적인 기술력은 전 세계 고객의 신뢰와 충성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이번 호에서는 자동차산업 이슈에 따른 YG-1 Tooling Solution 기술개발 동향을 진단해본다.

The accel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is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to lead the market. The same holds true for the cutting tool industry. The competition to combine digital manufacturing technology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o hone processing technology is getting harsh in the industry. In the cutting tool market, a small number of global powers are in a cut-throat competition to provide customized solutions to more customers. Against this backdrop, the Golden Frontier Award, which was given to YG-1 last year in China, is a prominent token of the company's potential to continuously grow to improve customer value in the rapidly changing market. Its innovative technology used in fine spindling tooling also helps intensify customers' trust and loyalty. This issue looks into YG-1's tooling solution technology development trend related to automotive industry issues.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 제조공장이 셧다운되면서 자동차산업 분야에서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주요 절삭공구시장에서 진행 중인 변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브랜드들은 테슬라보다 더 높은 성장을 보이며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잠재된 강점과 역량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폭스바겐과 다임러, 아우디, BMW 등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도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녹색 기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지속되고 정부 정책이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이 핵심 주제로 부각되었고, 자동차산업에서도 더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을 암시하고 있다.

The Automotive Industry sector is accelerating its conversion due to the impact of the global COVID-19 crisis causing shutdowns of manufacturing locations around the world. The COVID-19 crisis acts as a catalytic accelerator for all the changes going on in this important metal cutting market. Tesla keeps on growing, and Chinese brands are exhibiting even higher growth demonstrating their strength and capabilities to enter a new phase of becoming a serious worldwide international player. Also, the established car manufacturers are accelerating their efforts to switch to electric cars such as Volkswagen, Daimler, Audi, and BMW. Continuous societal pressure and government programs around the world are indicating that the shift into more climate-neutral mobility becomes a core topic in almost country and will drive more changes in this industry as well.

2021년 개최된 상하이 모터쇼는 중국이 미래 운송 부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이다. 또한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에 자동차 제조업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를 들어 아우디는 유럽의 자국 시장이 아닌 상하이 모터쇼에서 신형 A6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부문의 새로운 Tooling Solution 수요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모든 절삭공구업체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절삭공구업체의 최근 발표자료와 자동차나 운송 부문의 판매수치를 살펴보면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Shanghai Motor Show, held in 2021, once again demonstrated how important China i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for the future. The biggest car market in the world focuses on car manufacturers. Audi, for example, just showed a new A6 electric model for the first time to the world at this Show and not in their home market in Europe, anymore. These changes mean that the demand of the Automotive sector for new Tooling Solutions is changing a lot and all metal cutting tooling manufacturers have to adjust and face their offering to these facts. When you follow up on recent publications from the major metal cutting manufacturer and their public sales numbers in Automotive or transportation sector, you can see this massive shift has started and is in the full process already.

YG-1은 Global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미래 성장을 위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 새롭게 뛰어든 YG-1은 테슬라와 같은 기존 제조업체와 이에 도전하는 중국의 새로운 전기자동차업체를 위한 새로운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 오버코헨으로 이전한 독일 테크센터에서는 새로운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는 더 나은 서비스 능력을 제공한다. 독일 테크센 터는 YG-1이 새로운 환경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빠르고 신속한 고객 중심 솔루션과 고객 및 전문가 교육, 고도화된 맞춤 솔루션을 갖 추고 있으며,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보다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YG-1, as a Global Total Solution Provider, is positioned here very well for future growth. As YG-1 is newly entering this sector, we are ready with new engineered solutions without all the legacy the established metal cutting tooling manufacturers have similar to Tesla and all the new Chines electric car manufacturers challenging the existing traditional car manufacturers. Also, YG-1 is challenging the existing metal cutting tooling manufacturers. In addition, YG-1 Technology Center GmbH in Oberkochen has moved into its new building and offers all our customers even more capabilities to service their demands and needs for the new manufacturing methods they are implementing. It is positioning YG-1 for bigger future growth in a new environment of the Automotive sector and will open much more possibilities for YG-1 to grow with fast modern and customer-centric solutions, training for customers and metal cutting experts, and tailored highly engineered tooling solutions.

YG-1 테크센터가 경쟁사와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업체를 겨냥한 'Fine Borina Solution'이다. Fine Spindling Tooling은 엑셀 부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자동 Transfer line 시스템에 완전히 내장되어 있다. 또한, 단계별 공 정 모니터링(in-line process monitoring)이 가능하도록 자동으로 공구를 재조정할 수 있는 최신 전자 구동기(autuator)를 통해 정확도 1m 이내의 가공 결과를 보장한다. PCD 공구와 표준 ISO 인덱서블, 솔리드 카바이드 제품까지 모든 제품군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Fine Boring Solution'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골든 프론티어상 시상식에서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혁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표준 화에 부합하는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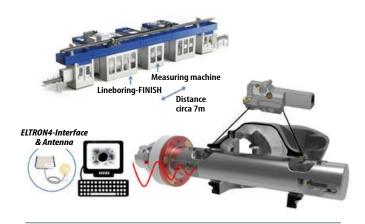
A very good example of how innovative YG-1 Technology Center GmbH can be and outpacing the established metal cutting manufacturer is a Fine Boring Solution for a German Premium car manufacturer. This 'Fine Spindling Tooling' is completely embedded into a new fully automated transfer line system for the manufacturing axle parts. Also, it uses modern electronic actuators to readjust the tool automatically with in-line process monitoring guarantees the machining results within an accuracy of 1µm. The entire tooling solution is utilizing the full power of YG-1's metal cutting offering combining PCD tools, standard ISO Indexable Tools, and solid carbide parts. This tooling concept is an innovative prizewinning solution for the "Golden Frontier Award" held in Beijing, China, and is presenting YG-1's capabilities in innovation by using modern digitalization tools and meets the world standard for industry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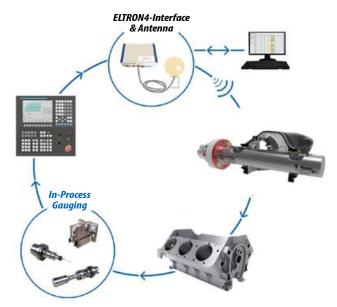
About the autor

- Dr. Robert Damaschek : Product Manager, Indexable Tools for EMEA
- YG-1 Technology Center GmbH: YG-1 Technology Center GmbH is located in Oberkochen, Germany, and specializes in precision tools, especially for the automotive industry. It provides innovative cutting tools and technical support with the aim of getting a strong strategic foothold in the very large Automotive market.

독일 오버코헨에 위치한 YG-1 Technology Center GmbH는 자동차산업을 위한 정밀공구에 특화되어 있으며, 매우 큰 자동차 시장에서 강력한 전략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적인 절삭 도구와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Transfer Line with in-line process monitoring





- · 정확도 0.001mm(Radius)
- · 조절 범위 : 0.3mm(Radius)
- ·Closed-Loop(폐쇄 루프) 프로세스
- •완전 자동화
- · 24시간 생산능력
- 가공 중단 시간 없음
- · 세팅 오류 없음

- · Accuracy 0.001mm (Radius)
- Adjustable: 0.3mm (Radjus)
- Closed-Loop process
- Fully automated
- 24h production capacity
- No machining downtime
- Zero adjustment errors

July 2022 7/6



41

воок и воок 👸

빅 컨버세이션

대담한 대담 -만남, 그 의미 있는 경험에 대하여

황창규 저 ㅣ 시공사

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으로 유명한 황창규 전 KT 회장이 30여 년 동안 세계적인 리더들과의 만남과 배움을 기록한 책이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정상급 리더와의 일화를 통해 그들이 가진 견해를 공유할 수 있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현 애플 최고경영자 CEO 팀 쿡,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릭 슈미터 전 구글 회장 등 각 분야 전문가와의대담을 통해 얻은 저자의 남다른 관점과 시선도 엿볼 수 있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여서 더욱 공감이 간다.





작별인사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대립 속에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

김영하 저 | 복복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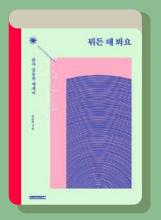
소설가 김영하가 9년 만에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그동안 파격적인 리얼리즘으로 현실적인 작품을 주로 선보였다면, 이번 신작은 인공지능의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와 인간이 공생하는 미래 세계의 이야기를 다룬 SF 소설이다. 소설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 통일된 한국에서 평화로운 일상을보내던 열일곱 살 소년 철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곳으로 끌려가면서 극적인 이야기가 전개된다. 김영하 작가의 상상력과 필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영화를 보듯 흥미진진하고 빠르게 읽힌다. 장편소설이지만 등장인물도 단순하고 이야기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데, 단락이여러 장으로 나뉘어 있어서 읽기도 편하고 특유의 빈틈없는 짜임새에서 작가의 내공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뭐든 해봐요

시각장애인 판사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법

김동현 저 | 콘택트

저자는 과학고와 카이스트 졸업 후 IT 전문 변호 사를 꿈꾸며 연세대학교 로스쿨에 합격했지만 2012년 5월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이 책은 시각 장애를 극복하고 도전해 법관이 된 김동현 판사의 첫 번째 에세이다. 그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해보고 안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며 좌절과 포기에 익숙한 우리에게 뭐든 해보라고 조언한다.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유명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깜깜한 세상을 살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남다른 사연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 그리고 뭐든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바로잡는 현실 조언

이평 저 | 스튜디오오드리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로 알려진 이평 작가의 신작이다. 저자는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미로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해 타인의 시선을 놓아버리고 나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필요도 없다고 충고한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과한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살고 있지는 아닌지 생각해 보자. 관계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한 번쯤 읽어봐도 좋을 책이다. 관계 맺기에 정답은 없지만, 더 이상 애쓰지 말고 당신의 인생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삶이 단순해지고편안해질 수 있다.



워라벨을 넘어 워라블 시대가 온다

Going beyond the Age of Work-life Balance to A New Era of Work-life Balance



라이프 스타일에도 유행이 있다. 세대의 성장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일과 삶을 대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이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며 이제 워라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과거에 없었던 근무 형태가 도입되면서 기업 문화도 많이 변한 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워라벨 대신 업무와 일상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워라블이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워라블은 말 그대로 일과 삶을 적절하게 '섞는다'는 의미다. 워라밸과 워라블의 차이는 무엇인지, 왜 많은 사람이 워라블에 공감하는지 알아보자.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기조 아래 좋은 직장을 가늠하는 첫 번째 조건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일과 삶, 두 가지를 똑같은 비중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다수 있었다. 자칫 조직보다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개념이 되기도 하고, 일하는 시간은 내가 희생하는 시간으로 간주되면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워라밸 대신 '워라블'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워라블은 일과 삶의 균형이 아닌 통합된 형태로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덕업일치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생겨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퇴근 후 커리어 성장을 도와주는 취미활동이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인기를 얻는 것 역시 워라블이 뜨고 워라밸은 지는 트렌드를 뒷받침한다. 퇴근 후 자신의 관심 분야를 공부하는 직장인을 뜻하는 샐러던트, 자신의 취미나 재능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장인 유튜버 등은 워라블의 좋은 사례가 된다. 일과 삶을 서로 상생하고 도와줄수 있는 관계로 보면서 즐겁게 일하고, 일한 뒤에는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다.

워라밸과 워라블 모두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점은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에 이끌려 사는지, 내가 일을 이끌며 살아가는지 여부다. 워라벨이 일과 개인생활을 완전히 분리해 균형 있는 삶을 추구했다면, 워라블은 일과 개인생활의 경계를 없애고일과 삶을 자연스럽게 블렌딩하여 일을 통해 '나다운 삶'을 추구한다. 워라블이라는 단어는 권리의식과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 Z세대를 중심으로 생겨난 신조어이다. 퇴근과 동시에 회사 업무를 '로그아웃'하던 기성 세대와 달리 Z세대는 직접 선택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위해 기꺼이 삶과 일의 경계를 없애고 자신이 원하는 커리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둘다 일을 중심에 두지만 좋아하는 일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쁨을 만끽하려 한다는 점에서 세속적 성공을 목표로 하는 기성세대와 선을 긋는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거기에서 더 큰 심리적 만족감과 활력을 얻는 게 '삶의 균형'이라고 말한다. 일을 통해 진정한보람과 삶의 가치를 느끼고, 삶의 방식을 일에 그대로 도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워라블의 핵심이다.

43 July 2022 ***//**5



HIGH QUALITY PRODUCTS and ON TIME DELIVERY for WORLD-WIDE CUSTOMERS

Since 1982, YG-1 has been committed to quality, innovation and the unique customer experience.

Our performance and experience have granted YG-1 the global impression of one of the leading manufacturers of high quality cutting tool solutions. This global footprint expands over 75 countries, with international logistic centers, pledging to our customers to give the best service available today - and tomorrow.

EUROPE BELGIUM FINLAND ITALY THE NETHERLANDS portugal SLOVENIA CROATIA FRANCE LITHUANIA ROMANIA SPAIN TURKEY CZECH REPUBLIC NORWAY SWEDEN WITED KINGDOM RUSSIA E DENMARK SWITZERLAND HUNGARY POLAND SERBIA **AFRICA EG**YPT SOUTH AFRICA ASIA PACIFIC SINGAPORE **MISTRALIA** INDONESIA **MALAYSIA** UNITED ARAB EMIRATES 👿 ISRAEL PAKISTAN SOUTH KOREA **VI**ETNAM HONG KONG JAPAN **PHILIPPINES** TAIWAN KINGDOM OF SAUDI ARABIA THAILAND **AMERICAS** BRAZIL **■** CANADA MEXICO **UNITED STATES** COLOMBIA



함께 나누는 이야기

YG-1 사보 〈내일을 향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룹 웹진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하고 정확한 소식을 담은 〈내일을 향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G-1's quarterly magazine <For Better Tomorrow> is a group webzine created with you. We will appreciate your great attention and participation. We will continue to make a better <For Better Tomorrow> to provide useful and accurate information to you.

분의 Inquiry

본사 해외영업본부 박유진 Yujin Park, Overseas Sales Div. HQ TEL: +82-32-500-5379 E-mail: yujin.park@yg1.kr 💥



HEAD OFFICE

13-40, Songdogwahak-ro 16beon-gil, Yeonsu-gu, Incheon 21984, South Korea Phone: +82-32-526-0909 E-mail: yg1@yg1.kr https://www.yg1.kr

44 July 2022 ***/**G